

연구보고 2012-34

한국아동패널 2012 심층분석 연구

김은설 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보다 잘 이해하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장기 중단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 육아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다 과학적이고 설명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이래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은 출생부터의 성장 과정을 중단적으로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요구와 양육실태, 아동의 발달 특성,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 등에 관한 국가수준의 중단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6년의 ‘한국아동패널’모형 개발, 2007년도의 예비조사 실시에 이어 2008년에는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구축하고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매해 이루어지는 일반조사에 더해, 2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일부 패널에 대한 심층조사를 수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횡단적인 자료를 추가로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어 2011년에는 4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고, 올해 2012년에는 5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2012년 진행된 사업 중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심층 분석 연구들을 모아 한 권으로 묶은 것으로, 2008년부터 2011까지 누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횡단 또는 중단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적 방안까지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논문은 총 4편으로, 각각 아동의 기질과 양육스타일, 어휘력 발달, 출산 의도와 실천, 부모의 양육행동 영향 요인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심층연구보고서는 기초연구로서 한국아동패널 연구 자료의 가치를 확인하고 연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정책적 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 제공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차년도 패널조사과 기초분석 등 바쁜 업무 중에도 심층분석 연구를 진행해 준 연구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육아정책 개발에 핵심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대한 보다 많은 심도 깊은 분석과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될 있기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2. 분석 자료	10
3. 분석 방법	10
4. 보고서 구성	11
II. 유아의 기질, 수면시간과 모의 양육스타일이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 (도남희)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방법	15
3. 연구결과	17
4. 결론 및 정책제언	22
III. 만 3세 유아의 어휘력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탐색: 유아의 개인 특성, 평일 일과활동 및 일상생활시간 변인을 중심으로(송요현)	26
1. 연구배경	26
2. 연구방법	28
3. 연구결과	34
4. 결론 및 정책제언	57
IV. 둘째 자녀 출산 의도와 출산 이행(왕영희·이예진)	63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63
2. 연구방법	66
3. 연구결과	68
4. 결론 및 정책제언	76

V. 유아 어머니와 아버지 간 자녀관, 심리적·맥락적 양육 특성 및 양육행동의 차이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김은설·정영혜)	83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83
2. 연구방법	86
3. 연구결과	90
4. 결론 및 정책제언	99
VI. 맺는 말	105
Abstract	107

표 차례

〈표 II-2-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5
〈표 II-3- 1〉 제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18
〈표 II-3- 2〉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19
〈표 II-3- 3〉 경로 1에 대한 효과계수 1	22
〈표 II-3- 4〉 경로 2에 대한 효과계수 2	22
〈표 II-3- 5〉 경로 3에 대한 효과계수 3	22
〈표 III-2- 1〉 연구대상 유아 및 가정의 일반적 특성	29
〈표 III-2- 2〉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 재코딩	32
〈표 III-3- 1〉 유아의 외적특성	34
〈표 III-3- 2〉 유아의 내적특성	34
〈표 III-3- 3〉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35
〈표 III-3- 4〉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	36
〈표 III-3- 5〉 수용·표현어휘력 일반적 경향	37
〈표 III-3- 6〉 수용·표현어휘력 등가연령	38
〈표 III-3- 7〉 수용·표현어휘력 백분위 규준별 분포	39
〈표 III-3- 8〉 유아의 외적 특성에 따른 어휘력 발달의 차이	40
〈표 III-3- 9〉 유아의 내적 특성에 따른 어휘력 발달의 차이	41
〈표 III-3-10〉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여부에 따른 어휘력 발달의 차이	42
〈표 III-3-11〉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에 따른 어휘력 발달의 차이	44
〈표 III-3-12〉 유아의 어휘력발달 예측모형 구성	46
〈표 III-3-13〉 모형 1 (통제모형) 사례요약	47
〈표 III-3-14〉 모형 1(통제모형) 적합도 정보	47
〈표 III-3-15〉 모형 1 모수추정치	48
〈표 III-3-16〉 모형 2 사례요약	48
〈표 III-3-17〉 모형 2 적합도 정보	49
〈표 III-3-18〉 모형 2 모수추정치	50
〈표 III-3-19〉 모형 3 사례요약	51
〈표 III-3-20〉 모형 3 적합도 정보	51

〈표 III-3-21〉 모형 3 모수추정치	52
〈표 III-3-22〉 모형 4 사례요약	53
〈표 III-3-23〉 모형 4 적합도 정보	53
〈표 III-3-24〉 모형 4 모수추정치	54
〈표 III-3-25〉 모형 5 사례요약	55
〈표 III-3-26〉 모형 5 적합도 정보	55
〈표 III-3-27〉 모형 5 모수추정치	56
〈표 IV-2- 1〉 검정변인과 측정도구	67
〈표 IV-3- 1〉 출산 의도 변화	68
〈표 IV-3- 2〉 출산 의도 후 후속 출산 이행율과 이행시기	69
〈표 IV-3- 3〉 후속출산 의도집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70
〈표 IV-3- 4〉 후속출산 의도집단의 자녀가치	71
〈표 IV-3- 5〉 후속출산 의도집단의 첫째 자녀요인	72
〈표 IV-3- 6〉 후속출산 의도 어머니의 심리요인	73
〈표 IV-3- 7〉 후속출산 의도 부부의 특성	74
〈표 IV-3- 8〉 양육지원	75
〈표 IV-3- 9〉 후속출산 이행 영향 변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6
〈표 V-3- 1〉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90
〈표 V-3- 2〉 부모 간 이상적인 자녀수 인식 비교	92
〈표 V-3- 3〉 부모 간 성별 이상적 자녀 수 인식 비교	93
〈표 V-3- 4〉 부모 간 자녀가치 인식 비교	93
〈표 V-3- 5〉 부모 간 자녀 미래기대 비교	94
〈표 V-3- 6〉 부모 간 개인 내적특성 비교	95
〈표 V-3- 7〉 부모 간 양육스트레스 비교	96
〈표 V-3- 8〉 부모 간 부부관계 특성 비교	96
〈표 V-3- 9〉 부모 간 아버지 양육참여 정도 인식 비교	97
〈표 V-3-10〉 부모 간 양육행동 비교	97
〈표 V-3-11〉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최종모형)	98
〈표 V-3-12〉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최종모형)	98

그림 차례

[그림 Ⅱ-1-1] 이론적 모형: 수면시간, 양육스타일 및 기질이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	14
[그림 Ⅱ-1-2] 기질의 사회성을 매개로하는 경로	20
[그림 Ⅱ-1-3] 기질의 정서성을 매개로하는 경로	20
[그림 Ⅱ-1-4] 기질의 활동성을 매개로하는 경로	21
[그림 Ⅲ-3-1]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35
[그림 Ⅲ-3-2]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	36
[그림 Ⅲ-3-3] 유아의 등가연령별 수용 및 표현어휘력	38

요 약

1. 연구 목적 및 내용

□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그간 한국아동패널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 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발달 연구와 육아정책 수립에 보다 구체적인 의미와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분석하여 다양한 주제로 연구 결과물을 보고함으로써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효과를 보다 널리 홍보하고자 함.
- 일반 공개 예정인 2010년 생산 3차년도 패널 자료의 활용 적절성에 대한 확인의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8-2011년까지 한국아동패널이 생산한 조사 자료임.

□ 본 보고서는 2008-2011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자료를 추가 심층 분석한 결과를 묶은 형태로, 다음과 같은 총 4개의 주제를 담고 있음.

- 유아의 기질, 수면시간과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유아의 발달수준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탐색함.
-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3세 유아의 어휘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유아의 개인특성, 일과활동, 일상생활시간 등 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휘력 발달 예측 요인을 찾고자 함.
- 첫째 자녀 출산 이후 후속 출산을 의도한 가구에 대해 실제 출산을 이행한 집단과 미이행한 집단을 비교하고 차이를 분석하였음.
-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식과 양육특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함.

2. 유아의 기질, 수면시간과 모의 양육스타일이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는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의 하나인 수면시간,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및 기질이 유아의 발달 수준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음.
- 연구대상은 2010년도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일반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만 2세아 1,802 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는 917명(50.9%), 여아는 885(49.1%)으로 남아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은 편임. 단, 분석에 사용된 유아는 1734명이었음.
- 수면시간,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및 기질이 유아의 발달 수준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 기질의 사회성과 정서성은 발달 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성은 4% 정도였음.
- 유아의 발달수준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질의 사회성을 매개로 할 때는 기질의 사회성이 다른 변인에 비해 발달수준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기질의 정서성과 활동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발달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기질의 특성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의 설명력과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한계점은 있으나 유아의 수면시간이 충분하고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수용적이라면 기질은 이에 대한 완화효과와 증진효과를 가져와서 발달수준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음.
-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더불어 아동발달을 고려하는 맞춤형 보육으로 나아갈 준비가 필요함.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미래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고자 전반적으로 아동의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발달에도 주목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부와 어머니의 양육기술을 지원하여 양육역량 강화가 요구됨.

3. 만 3세 유아의 어휘력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탐색: 유아의 개인 특성, 평일 일과활동 및 일상생활시간 변인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에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3세 0개월~5개월 사이 유아의 어휘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고자 함.
- 유아의 개인적 특성 및 평일 일과활동과 일상생활시간에 따라 수용·표현어휘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음. 또한 유아의 어휘력발달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해서 검증해보았음.
- 본 연구 대상의 어휘력 발달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유아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 모두 2세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생활연령인 3세 0-5개월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음.
 - 유아가 남아일 때 표현어휘력 발달이 지체인 경우가 많았고, 유아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경우 표현어휘력 발달이 약간지체이거나 발달지체인 경우가 많았음.
 - 유아의 기질이 활발하거나 사회성이 높을 때 표현어휘력에서 더 긍정적인 발달을 보였으나, 기질이 활발하지 않거나 사회성이 다소 낮을 때 오히려 수용어휘력의 발달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였음.
 -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위축되거나 회피하는 놀이단절이 적은 유아들이 어휘력 발달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
-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과 일상생활시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유아는 'TV, 비디오 시청'을 가장 많이 하였음. 다음으로 책 읽기와 주양육자와 놀기, 혼자 집안에서 노는 것으로 평일 일과활동을 보내고 있음.
 - 일상생활시간은 저녁 수면시간이 약 9.8시간, 어린이집 이용시간 약 7.6시간임. 그 다음으로는 형제/자매와 놀이 시간, 주양육자와 노는 시간을 포함하여 약 3~4시간을 놀이로 보내고 있음.
 -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과활동 및 일상생활시간은 혼자 놀

이시간여부와 성인과의 외출 여부, 책읽기를 하는지와 책 읽는 시간임.

- 다른 일상생활 중 어휘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는 학습지 등 방문교육에 따라서는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모두에서 차이가 없었음.
-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탐색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출생순위는 수용어휘력 보다는 표현어휘력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즉 출생순위를 통해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환경요소들, 즉 일상생활패턴이나 기관의 이용, 형제/자매와의 놀이시간과 주양육자와 노는 시간의 비율의 변화 등에서 표현되는 어휘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유아의 기질보다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음.
 - 어휘력 발달에 있어서 일관적인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책을 읽는지의 여부와 책을 읽는 시간이었음. 일반적으로 외국어나 한글 등의 학습을 위해서 이용되는 학습지 등의 방문교육은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음.
-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인 특성과 평일 일과활동, 일상생활시간 등이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유아의 기질이나 또래상호작용, 출생순위 등이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검증함. 학습지 하는 것은 유아의 어휘력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었으나, 책을 읽는 것은 유아의 어휘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검증함.
- 유아의 어휘력발달을 위해 책읽기와 놀이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부모교육 제안과 아버지 놀이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방의 전문성 강화와 활용, 가족 사랑의 날의 현실화, 찾아가는 어린이 도서관 등의 강화를 위한 가정, 기업, 국가의 공조를 제안하였음.

4. 둘째 자녀 출산 의도와 출산 이행

- 첫째인 패널 아동 출산 이후 후속출산을 의도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가구들을 대상으로, 첫째아 출산 1~3년 후 실제출산을 이행한 집단과 미이행 집단을 비교하였음.
- 한국아동패널 1차 ~ 4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551가구 중 패널 아동에 해당하는 첫째 자녀 출산 이후, 한 번이라도 후속출산을 의도하고 있다고 응답한 715가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따른 출산 이행
 - 한자녀 가구의 후속 출산 의도는 2008년 53.3%, 2009년도 64.2%, 2010년도 57.6%, 2011년도 34.8%로 2차년도에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었음.
 - 둘째를 의도한 집단 중 연년생으로 자녀를 출산한 집단은 3.8%였으며, 첫 아이와 2~3년 차이를 두고 동생을 출산한 집단은 각각 47.7%, 48.5%로 나타났음.
- 둘째 자녀 출산 의도/이행 집단과 둘째 자녀 출산 의도/미이행 집단 간의 차이
 - 2011년을 기준으로 부모의 연령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후속출산을 이행하지 않은 집단에서 높았음.
 - 어머니의 취업은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집단에서 많았음.
 -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의 이상적 자녀수가 많았음.
 -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이 자녀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음.
 -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 요인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의 경향은 일관성이 있으나 차이는 조사년도에 따라 다름.
 -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경우, 2010년과 2011년에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

에서 많아졌음.

- 사회적 지원은 차이가 없었음.

둘째 자녀 출산 의도 집단에서 출산 이행을 예측하는 변인들

- 후속출산 의도 집단의 출산 이행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한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후속출산 의도의 이행 여부에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어머니의 이상 자녀수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5. 유아 어머니와 아버지 간 자녀관, 심리적·맥락적 양육 특성 및 양육행동의 차이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식과 특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가정 내에서 나타나는 유아 자녀의 양육 특성을 알아 보고자 함.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2011년 조사) 자료 중 어머니 설문과 아버지 설문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t 검정(*paired t-test*), χ^2 검정, 다중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탐구하였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1~2명의 자녀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아들 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딸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음.
-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보다 높은 정서적 및 도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위나 명성, 취미/여가 생활 등을 자녀의 미래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어머니 보다 높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금전적 성공, 행복한 가정생활을 자녀 미래에 기대하는 경향이 큼.
-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심리적 특성에서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등에서 모두 아버지가 어머니 보다 긍정적 성향을 보임.

-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높은 결혼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부부갈등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었으며,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의 인식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한계 설정 양육행동 측정에서 어머니의 점수가 아버지 점수보다 높아,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욱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이 포함된 점이 아버지의 경우와 다른 결과임.
-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자녀 수에 대해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은 자녀를 이상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어머니 중심 출산 지원이 필요함.
 -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시기, 출산 과정,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이어지는 어머니로서의 힘든 기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함.
 -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문제라고 봄.
 - 적절한 정신 건강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 등을 국가 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 필요함.
 -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신체적 여유가 주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함.
 - 아버지들의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앞서 업무 시간 종료 이후 아버지가 동료, 업무상 관계자들과 보내야 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사회가 동참할 필요가 있음.

6. 맺는 말

-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아동패널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총 네 가지 연구 과제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그 함의를 찾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음.
-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모두 4팀이었으며 이들 각자는 패널 조사에 사용된 변인을 들여다보고 그들 간의 관계를 기존 이론을 통해 탐구한 후 가설을 세우고 그를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임.
- 올해 한국아동패널 심층보고서는 첫 시도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지속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꾸준히 양육과 관련한 핵심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보다 과학적이고 수준 높게 논의하고 연구하는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이들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국가 수준의 신생아 패널로 매해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인적, 물적 환경에 대한 횡/종단적 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아동학, 심리학, 교육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활용가치가 높은 매우 귀중한 데이터이며, 아동을 위한 정책 수립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지난 4년간 한국아동패널 연구가 생산해온 우리나라 영유아에 대한 종단 자료들은 무엇보다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분석되어 그 결과가 널리 발표되고 알려질 때 가치가 되살아날 수 있다. 패널 대상 아동이 이제 겨우 만 4세에 접어든 시기인 만큼 지금까지는 종단비교가 쉽지 않았고 대상 아동들의 생활 반경이 단순하여 어머니, 아버지의 인식과 의식 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의 발달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생활환경이 넓어지면서 그와 관련한 분석이 다양해질 것임은 자명하다. 이와 더불어 내용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자료가 가진 심층적 의미를 분석해내는 작업은 아동패널 연구자가 뛰어들어야 할 또 다른 과제일 것이다.

올해 본 '한국아동패널 2012 심층분석' 연구를 진행하게 된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간 한국아동패널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 재분석함으로써 기초 분석 보고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아동발달 연구와 육아정책 수립에 보다 구체적인 의미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축적되어 온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분석하여 다양한 주제로 연구 결과물을 보고함으로써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효과를 보다 널리 홍보하고자 한다. 셋째, 곧 일반 공개 예정인 2010년 생산 3차년도 패널 자료의 활용 적절성에 대한 확인의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해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그 자료 활용의 적절성과 자료 클리닝 작업 효과를 얻고 있는 바, 본 심층 분석 연구는 최근 생

산된 3차년 및 4차년도 패널 자료가 가진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해 가는 데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8-2011년까지 한국아동패널이 생산한 조사 자료이다. 조사 자료의 특성을 간략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는 2008년 4~7월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비표본 2,561가구를 표집, 그 중 2,078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본의 특성으로 남아 1,056명, 여아 1,022명이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830가구, 중소도시 834가구, 읍면지역 414가구이다.

조사내용은 아동의 출생부터 성장과정을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각 시기의 아동발달, 부모 특성, 가족 환경, 양육실태, 육아지원서비스의 기능과 효과, 지역사회, 육아지원정책 등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미시적, 거시적 환경이다. 조사는 매해 면접 및 우편조사로 아동, 부모, 육아지원기관 등 여러 대상에 걸쳐 이루어지며 현재에는 5차년도 자료를 수집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1~4차년도 자료를 종단적으로 또는 횡단적으로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 논문들은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SPSS 20.0을 이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해마다 발간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는 그야말로 각 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을 나열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 심층분석 연구는 기초분석 과정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변수와 변수 간 관계를 중심으로 재분석하여 평균, 빈도 등 기술통계치 뿐 아니라 교차분석, t 검정, 변량분석 등의 관계 분석 방식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 중다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 고급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원자료로부터 의미를 찾아내는데 집중

하였다.

4.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2008-2011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를 추가 심층 분석한 결과를 묶은 형태로, 다음과 같은 총 4개의 주제를 담고 있다. 각 주제별 원고는 독립적 논문형태로 장별로 연구자가 주제를 정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집필하도록 하였다.

첫째는 유아의 기질, 수면시간과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유아의 발달수준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3세 유아의 어휘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연구로, 유아의 개인특성, 일과활동, 일상생활시간 등 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휘력 발달 예측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셋째 연구는, 첫째 자녀 출산 이후 후속 출산을 의도한 가구에 대해 실제 출산을 이행한 집단과 미이행한 집단을 비교하고 차이를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식과 양육 특성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각각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6절에서는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II. 유아의 기질, 수면시간과 모의 양육스타일이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

도 남 회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연구들을 보고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의 수면시간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짧다'고 한다(스포츠조선, 2011; 연합뉴스, 2009). 또 다른 연구들은 영아기의 수면습관의 지속성과 수면습관과 성장 호르몬 또는 비만에 관한 내용들을 발표하였다(메디컬헤럴드, 2011; 세계일보, 2012; YTN, 2012). 최근 아동의 권리 보호(children's right)와 주관적 안녕감(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아동들의 기본생활습관과 놀이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고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잘 하고 있을 때 완전한 건강상태(well-being)라고 한다. 이러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유아기부터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기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은 건강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립심과 독립심을 기르는데 기본이 되므로 영유아기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여부는 청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생활습관은 연구자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김재은(1994, 최호중·김설한·김성재, 2010 재인용)은 식사습관, 잠자는 습관, 대소변 가리기, 옷입는 습관, 청결습관으로 범주화하고 이경우와 이은화(1987, 최호중·김설한·김성재, 2010 재인용)는 식습관, 수면습관, 배변습관, 청결 및 옷 관리습관, 예절로 구성하기도 한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서도 전 생활영역에서 바른 생활이나 기본생활을 하위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생활습관은 수면, 식습관, 배변습관의 3 가지 요소가 중요하

1)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다. 수면은 인간 삶의 1/3을 차지하며 생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바람직한 건강습관에 주요 요소이다. 즉, 수면은 신체기능의 회복과 항상성 유지, 에너지 보존과 건강유지에 필요하며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주고 수면이 부족할 경우,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활력 저하 등의 생활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3~5세 때 생활습관과 7세 때의 체질량지수(BMI)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3~5세 때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짧은 아동은 7세가 되었을 때 BMI지수가 0.56 더 높았다고 한다(Talor, 2005). 또한 영아기에 수면장애가 있으면 유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잠을 잘 자는 아이들에 비해 성장호르몬 분비가 적어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수면시간과 신체활동량과의 관계인데,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신체활동량이 적어지면서 부족했던 수면량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활동량과 관련하여 하루 2시간 이상의 TV나 컴퓨터를 사용할수록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수면시간과 열량섭취량의 관계를 보면, 짧은 수면시간과 고지방 섭취의 과잉, 운동 부족과 관련이 될 수 있다(백인경·신철, 2011)고 한다. 유아의 식습관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건강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두뇌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조식은 인체의 영양소를 공급하고 장기간의 공복상태를 해소시킴으로써 두뇌 및 인지작용을 향상시킨다(Wesness, PincocK, Helm, & Hails,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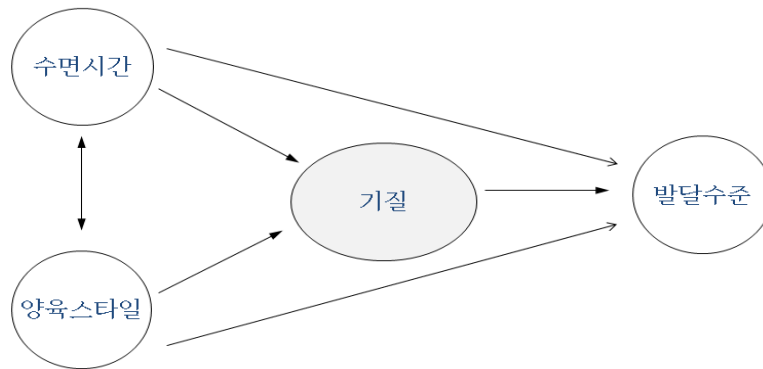
유아의 배변은 식사섭취 여부뿐만 아니라 전날의 신체놀이 및 활동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상적인 아동의 경우 하루 2-6시간의 신체적 활동이 필요하지만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정숙·김성재, 2009). 신체활동이 유아의 자유로운 감각작용과 상상력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며, 이러한 신체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게 될 때 유아의 인지적 기능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신체놀이를 통해 욕망, 감정, 충동을 인식하고, 인지학적 상상력을 통해 상상이 발현된다는 것이다(함정혜·강선옥, 2010).

한편 기질은 타고난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 유형을 반영하므로 유아의 활동수준, 사회성, 민감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질은 보통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EAS 모형(Buss & Plomin, 1984)이 있는

데, 기질은 유아의 선천적인 성향을 나타내므로 같은 자극이나 경험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기질은 아동의 행동 특성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는데, 기질 특성이나 차원을 측정하거나, 영유아의 행동특성이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기질과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연구하거나 기질의 내용을 여러 차원으로 정의하고 변화하는 것을 보는 연구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기질의 연구와 함께 많이 논의되어 온 것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스타일(어머니의 수용성)이다. 기질에 의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향을 받는 연구는 꽤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체로 까다로운 기질은 거부적 행동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고, 긍정적인 정서성은 반응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Belsky(1984)는 자녀의 기질을 부모역할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으며 자녀의 기질적 특성은 부모의 역할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생활습관의 하나인 수면시간과 어머니의 수용적인 양육행동(스타일)이 기질과 어떠한 관계인지 살펴보고, 또한 기질은 유아의 발달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1-1-1] 이론적 모형: 수면시간, 양육스타일 및 기질이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유아를 대상으로 체중, 기본생활습관의 수면시간과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기질이 이러한 기본생활습관과 아동의 제 발달 변인에 매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상

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체중, 수면시간, 양육스타일, 기질과 전반적인 발달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도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일반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만 2세 아 1,80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917명(50.9%), 여자는 885(49.1%)으로 남아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은 편이다. 영유아의 월령은 26개월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월령은 25.8개월이다. 영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838(4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첫째와 둘째가 많은 편이다.

〈표 II-2-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내용	N(%)
영유아 성별	남아	917(50.9)
	여아	885(49.1)
영유아 월령	23개월	67(3.7)
	24개월	248(13.8)
	25개월	469(26.0)
	26개월	547(30.4)
	27개월	301(16.7)
	28개월	110(6.1)
	29개월 이상	60(3.3)
영유아 출생순위	첫째	838(46.5)
	둘째	763(42.3)
	셋째	180(10.0)
	넷째	21(1.2)

나. 측정변인과 도구

1) 종속변인: 발달 수준

발달 특성은 허계형, Squire, 이소영과 이준식(2006)의 K-ASQ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원도구 ASQ II판을 한국에 맞게 표준화한 도구로서, 총 5가지 발달 영역 - 의사소통 영역,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영역 - 에 각각 6개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해 '예(10점)', '가끔(5점)', '아니오(0점)'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대답하여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는 발달선별 검사이므로 절선 점수 대비 결과에 대해 '양호', '발달지연의심' '추후검사로 구분되는 판단을 이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발달 수준을 판단하기 쉽도록 총점을 사용하였다. 각 발달 영역별 가능한 점수 범위는 0~60점이다.

2) 독립변인

가) 체중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3세 아동의 체중을 사용하였는데, 조사원들이 체중계를 가지고 직접 체중을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 3세 아동의 체중의 범위는 9~17kg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평균체중은 12.55kg으로 나타났다.

나) 유아의 하루 일과 시간

유아의 가능한 활동내용을 제시하고 활동여부와 활동시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질문으로서 유아의 활동내용별 활동여부와 활동을 사용하는 시간의 양으로 표시하였다. 유아의 평일 일과 활동내용은 혼자 집안에서 놀기, 친구와 놀기(육아지원 기관에서의 시간 제외), 주양육자와 놀기, 형제/자매와 함께 놀기, 혼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기, 학습지 등 방문교육, TV, 비디오 시청,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성인과의 외출, 책 읽기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 낮잠(육아지원 기관에서의 시간 제외), 기타의 총 13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아의 하루 일과 시간은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데이터에는 실제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으로 응답되었다. 하루일과 시간 중 수면시간과 TV 시간을 사용하였다. 먼저, 수면시간은 8~12시간의 범위를 나타냈다. TV, 비디오 시청시간은 평균 1.37시간으로 나타났다.

다) 모의 양육스타일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사회적 양육유형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총 9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9~45점이며 평균점수는 3.80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유형임을 의미한다.

라) 기질(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

기질은 부모용 EAS 기질척도로서 신나리 외(2007)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EAS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5개, 5개, 10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다. 가능한 점수 범위를 살펴보면, 정서성은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문항 점수의 배열을 바꾸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활동성은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하기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성은 1~10점이 가능한 점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다. 연구절차와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아의 수면시간, 양육스타일 및 기질이 유아의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가.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발달수준, 독립변인인 체중, 수면시간, TV와 비디오 시청시간, 기질 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11-3-1〉 제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점, 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K-ASQ 총점(발달수준)	272.32	29.10	0	300	1734
체중	12.55	1.41	9.00	17.00	1734
TV 시청	81.06	52.80	10.00	480.00	1734
수면시간	9.83	.79	8.00	12.00	1734
기질: 정서성	2.84	.61	1.20	5.00	1734
기질: 활동성	3.90	.59	1.40	5.00	1734
기질: 사회성	3.59	.55	1.50	5.00	1734
모의 양육스타일	3.79	.51	1.00	5.00	1734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독립, 종속 및 매개 변인들로 선정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표는 다음과 같다. 정반적인 상관의 경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065~.521 정도였다.

체중은 다른 제 변인들과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양육스타일, 기질의 정서성과 발달수준과 낮은 점수이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스타일은 기질의 사회성, 정서성과 활동성 모두와 상관이 있었고, 발달수준과도 상관을 나타냈다. 즉, 양육스타일이 유아의 기질 세 측면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양육의 긍정적이면 기질의 정서적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이 함께 긍정적이며 발달수준도 높을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질 중 사회성은 기질의 정서성과 활동성, 발달수준과 관련이 있는데, 유아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안정성이 관계되며, 활동성이 높을 것이고, 발달수준도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정서성은 수면시간, 양육스타일과 사회성과 관련이 있었다. 기질의 활동성은 양육스타일과 기질의 사회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SQ의 총점에 의한 발달수준은 체중과 기질의 활동성을 제외한 수면시간, 양육스타일, 기질의 사회성과 정서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체중	1						
2. 수면시간	-.016	1					
3. 양육스타일	.037	.065**	1				
4. 기질: 사회성	.067	.007	.218**	1			
5. 기질: 정서성	.037	.095**	.212**	.269**	1		
6. 기질: 활동성	.032	-.025	.140**	.521**	.043	1	
7. K-ASQ 총점	-.011	.089**	.158**	.127**	.074**	.02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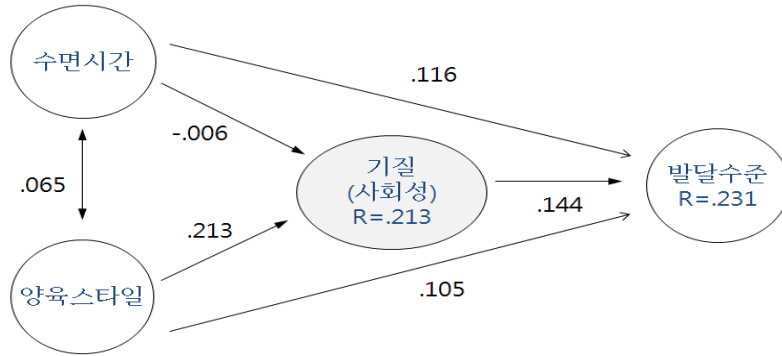
** $p < .01$.

나. 유아의 수면시간, 양육스타일 및 기질이 유아의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수면시간, 양육스타일 및 기질이 유아의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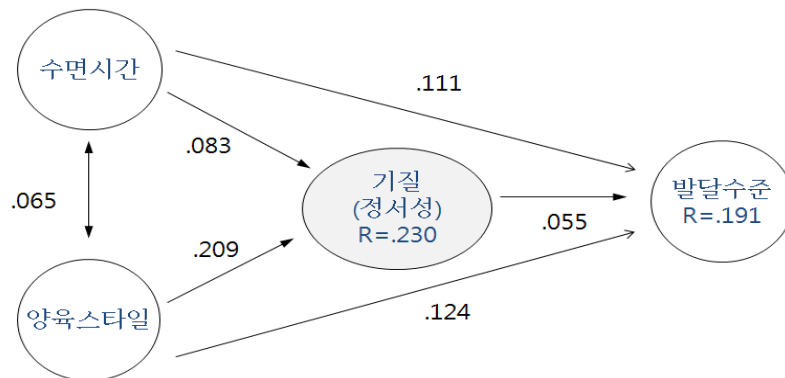
1) 직접적 영향

유아의 발달수준에 대한 각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유아의 발달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면시간, 양육스타일, 기질이라고 할 수 있다. 수면시간과 양육스타일은 상호 직접적인 영향($\beta = .065, p < .01$)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기질은 세 하위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기질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경로계수를 보여주었다. 먼저, 기질의 사회성을 매개로 할 때, 수면시간($\beta = .116, p < .001$), 양육스타일($\beta = .105, p < .001$)과 기질의 사회성($\beta = .144, p < .001$)은 발달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쳤다. 발달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면시간이 길수록, 모의 양육스타일에서 수용성이 높을수록, 기질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발달수준이 높을 것이다. 이들 변인 중 수면시간과 기질의 사회성이 발달수준을 다른 변인에 비해 좀 더 예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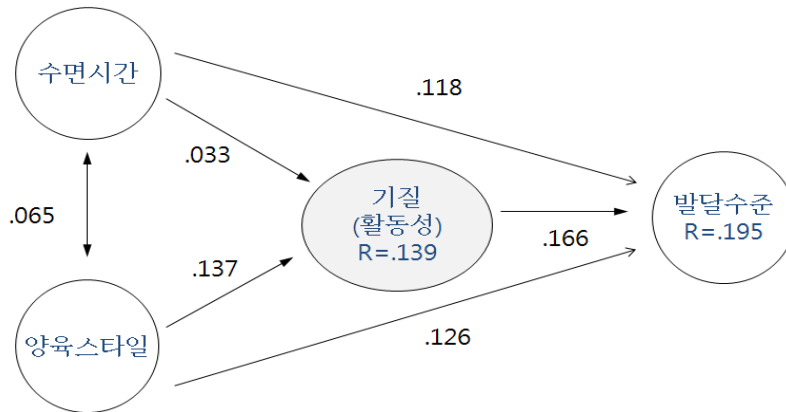
[그림 II-1-2] 기질의 사회성을 매개로하는 경로

두 번째 기질의 정서성을 매개로 한 경로계수를 보면, 수면시간($\beta = .111$, $p < .001$), 양육스타일($\beta = .124$, $p < .001$)과 기질의 정서성($\beta = .055$, $p < .001$)은 발달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쳤다. 발달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면시간이 길수록, 모의 양육스타일에서 수용성이 높을수록 발달수준이 높을 것이며 기질의 정서가 안정될수록, 즉 부정적 정서가 적을수록 발달수준이 높을 것이다. 이들 변인 중 수면시간과 모의 양육스타일이 발달수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1-3] 기질의 정서성을 매개로하는 경로

세 번째는 기질의 활동성이 발달수준을 매개하는 경우로서 수면시간($\beta = .118, p < .001$), 양육스타일($\beta = .126, p < .001$)과 기질의 활동성($\beta = .166, p < .001$)은 발달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쳤다. 발달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면시간이 길수록, 모의 양육스타일에서 수용성이 높을수록, 기질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발달수준이 높을 것이다. 이들 변인 중 기질의 활동성이 발달수준을 다른 변인에 비해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수면시간과 양육스타일도 발달수준을 예측할 것이다.



[그림 II-1-4] 기질의 활동성을 매개로하는 경로

2) 간접적 영향

유아의 발달수준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간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질의 사회성을 매개로 양육스타일($\beta = .213, p < .001$)이 기질의 사회성을 통해서 발달수준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그림 II-1-4). 또한 기질의 정서성을 매개로 하는 경우의 유아의 발달수준에 대한 간접적 영향은 수면시간($\beta = .083, p < .001$)과 양육스타일($\beta = .209, p < .001$)이 기질의 정서성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그림 II-1-3). 마지막으로 기질의 활동성의 경우는 양육스타일($\beta = .137, p < .001$)이 기질의 사회성을 통해서 발달수준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1-4).

〈표 II-3-3〉 경로 1에 대한 효과계수 1

구분	수면시간	양육스타일	사회성
기질	-.006	.213	
발달수준	.135	.116	.144

유아의 발달수준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질의 사회성을 매개로 할 때는 기질의 사회성이 다른 변인에 비해 발달수준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4〉 경로 2에 대한 효과계수 2

구분	수면시간	양육스타일	정서성
기질	.083	.209	
발달수준	.115	.135	.055

한편 기질의 정서성과 활동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발달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기질의 특성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5〉 경로 3에 대한 효과계수 3

구분	수면시간	양육스타일	활동성
기질	-.033	.137	
발달수준	.120	.135	.066

4.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의 하나인 수면시간과 어머니의 양육스타일(행동)이 기질과 어떠한 관계인지 살펴보고, 또한 기질은 유아의 발달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수면시간,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및 기질이 유아의 발달 수준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 발달 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는데, 기본

생활습관의 하나인 수면시간은 발달 수준에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의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이 아동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수면시간도 중요한 성장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현대사회의 영유아들은 부모의 취업이나 TV나 인터넷 매체 등의 노출이 빈번하여 수면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유아들의 수면시간의 양과 수면의 질은 성장기의 발달 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기질과도 관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발달수준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양육스타일의 기질과 발달수준에의 영향력은 다른 변인들 간의 영향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 진행된 개별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장하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은 본인의 기질도 중요하고 이에 반응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스타일에 발달의 경로를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기질의 사회성은 다른 기질의 요인-정서성과 활동성에 비해 양육스타일과 발달수준에 영향력이 크다.

셋째, 기질과 발달수준과의 관계를 볼 때, 기질의 특성에 따라 발달수준의 영향을 다르게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기질의 특성에 따른 경로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기질의 사회성은 발달수준에 대한 설명력도 높으며, 발달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질은 양육스타일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 어머니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발달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정서성은 부정적 정서의 문향을 변화하여 점수가 높으면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는데, 발달수준과의 관계에서 완화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질의 활동성도 기질의 다른 두 특성만큼은 아니지만, 발달에 대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수면시간이 충분하고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수용적이라면 기질은 이에 대한 완화효과와 증진효과를 가져와서 발달수준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물론 전체적인 설명량이나 효과의 크기가 낮으므로 이러한 결론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나, 향후 기본생활습관의 다른 측면들과의 관계성을 더 보거나 기질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본생

활습관과 건강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의 보육정책은 기관을 중심의 보육정책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보육비용과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OECD 국가의 평균 보육비용-GDP 대비 0.6%에 근접하여 2011년 현재 0.53%로 집계되었다. 그러므로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더불어 아동발달을 고려하는 맞춤형 보육으로 나아가갈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아동의 건강을 생각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미래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구체적 노력을 정책에 담아야 한다.

둘째,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건강에 대한 구체적 노력으로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아동의 인지적 발달과 취약계층의 인지적 발달의 차이를 없애고자 노력하였다면 이제는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발달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건강을 예견하는 지표가 되므로 신체적 건강을 위한 수면의 질과 운동, 인지적 영영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건강과 기본생활습관을 배려하는 구체적 정책의 실현으로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부모에게 양육지식을 전달하거나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양육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양육을 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대신해 줄 양육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부와 어머니의 양육기술을 지원하여 양육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훈(2011). 학령기 아동의 수면시간 및 신체활동량과 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7(1), 63-72.
- 김미숙·송윤진(2011). 보육시설 유아의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습관 실태 연구. 유

- 아교육학논집, 15(1), 185-202.
- 백인경·신철(2011). 수면시간과 비만, 열량영양소 섭취비율 및 신체 활동량과의 관련성.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6(3), 315-323.
- 이경숙·박미현·박진아(2008). 유아의 수면 행동양상과 성차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집*, 474-475.
- 이정숙·김성재(2009). 유아기 신체건강과 관련한 일상생활습관 실태에 연구. *아동학회지*, 30(3), 177-196.
- 최민수·김명복(2012). 유아교육기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자기조절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59-382.
- 최호중·김설한·김성재(2010).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유아의 신체건강과 관련된 기본생활습관의 차이 분석. *유아교육·보육행정 연구*, 13(3), 35-55.
- 전선혜·전희준(2011).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5(1), 171-184.
- 함정혜·강선옥(2010). 유아 신체놀이 활동의 인지학적 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4(3), 91-100.
- 前橋 明(2005) 일본 어린이들의 신체의 이변과 그 대책. *한국유아체육학회지*, 4(1), 101-114.
- Allen, K. E., & Martoz, L. R. (2003). *Developmental profiles: Pre-birth through twelve* (4th ed.). Clifton Park, NY: Delmar Learning.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Wesness, K. A., Pincock, D., Helm, G., & Hails, S. (2003). Breakfast reduces declines in attention and memory over the morning in the schoolchildren, *Appetite*, 41, 329-331.

Ⅲ. 만 3세 유아의 어휘력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탐색: 유아의 개인 특성, 평일 일과활동 및 일상생활시간 변인을 중심으로

송요현²⁾

1. 연구배경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발달은 출생 직후부터 시작하여 발달하게 되는데, 크게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김반재·장성오, 2011). 수용언어는 활동 중 타인의 하는 말을 듣고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수용하여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언어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 나타내기 위해 구강을 움직이거나 의미 있는 말을 산출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한다(이상숙, 2007). 어휘는 말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이며 어휘능력은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이해하거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능력이다(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

어휘 발달은 의미론적 능력의 발달뿐만 아니라 구문, 읽기 등 다른 언어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휘 발달과 언어능력과의 관계를 고찰한 배소영 외(1999)는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어휘습득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어휘가 모여 구문 구조를 이루고, 내용이 담긴 어휘에 의미와 문법적 요소가 추가되는 문법 형태소를 붙여 어휘는 점차 세련화 되어 간다. 알고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많아질수록 아동의 언어능력도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김영태 등, 2009 재인용).

유아의 기질은 타고난 선천적인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들 중의 하나로서, 영유아 연구에 필수적인 변인으로, 타고난 유전적인 성향이 다른 환경적 요

2) 육아정책연구소 위촉 부연구위원

인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차를 유발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정림 외, 2010). 또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유아의 성장에 따른 사회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더불어 건강한 관계 형성은 유아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다(Guralnick, 1992; Rubin, Bukowski, & Parker, 1998, 최혜영·신혜영, 2008 재인용). 따라서 유아의 선천적 기질과 사회적 패턴속에서 발달하는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일상생활 패턴은 유아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일 수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되면서 동시에 사회를 구조화하는 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회 구성원의 삶과 그들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의 구성과 흐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김은화, 2012). 생활시간 연구는 사람들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생물학적, 사회적 시간표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현되는지를 파악하였고, 사회적 맥락 내에서 생활양식과 세계를 파악하는데 기여한다(진미정, 2008). 또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미래 사회의 자녀 발달을 추정하거나 예측할 때는 물론 다양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정재기, 2008).

우리나라에서 생활시간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남편이나 아내의 생활시간을 연구함으로써 가정 내 가사노동 분담 실태나 역할분담, 시간관리 전략 등을 밝히는데 주목해왔다(진미정, 2008).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생활시간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김기현·이경상, 2006; 나영주·황진숙·이은희·고선주·박숙희, 2005; 류지수, 2008)이나 아동의 생활시간(강인자·김혜연, 2005; 진미정·이윤주, 2010)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생활시간 연구대상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취학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 연구는 진미정과 이윤주(2010), 김은화(2012)의 연구정도로 극히 적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를 보면 만3세 유아의 67.5%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원기관에 다니는 유아를 중심으로 평일 일과활동과 그 일과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생활시간을 중심으로 유아의 일상생활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만3세 유아의 수용 및 표현어휘력 발달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만3

세 유아의 어휘력발달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유아의 발달은 유아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일상생활 패턴과 그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유아의 언어발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일상생활에 바람직한 경험을 증가시키고, 육아지원기관 및 부모에게 유아를 위한 평일 일상생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나. 연구문제

- 1) 만3세 유아의 개인특성(기질, 또래상호작용)과 평일 일과활동, 일상생활시간 실태는 어떠한가?
- 2) 만3세 유아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은 어떠한가?
- 3) 만3세 유아의 개인특성 및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과 일상생활시간에 따라 어휘력 발달은 차이가 있는가?
 - (1) 만3세 유아의 개인특성(기질, 또래상호작용)에 따라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은 차이가 있는가?
 - (2) 만3세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에 따라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은 차이가 있는가?
 - (3) 만3세 유아의 일상생활시간에 따라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은 차이가 있는가?
- 4) 만3세 유아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가.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

분석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2011(4차년도)' 데이터이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 성공 패널은 1,754명이나, 본 연구에서는 면접용(CAPI) 질문지와 기관용 질문지, 아동의 수행검사로 이루어진 수용·표현어휘력 검사(김영태 외, 2009,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에 모두 응답한 사례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차년도 응답패널 1,754명에서 REVT 검사와 기관 질문지를 모두 응답한 790명을 1차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중 유아의 생활연령을 3세 0개월~ 5개월로 통제하였다. 또한 기관을 다니는 유아 중 유치원(8명)과 반일제 이상 학원(24명)을 다니는 32명을 제외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연령과 기관을 통제하여 최종 선정된 연구대상은 총 734명이다.

〈표 III-2-1〉 연구대상 유아 및 가정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어머니의 취업	
남자	50.0(367)	취업함	49.0(360)
여자	50.0(367)	취업하지 않음	50.8(373)
출생순위		무응답	0.1(1)
첫째	46.3(340)	거주지역 규모	
둘째	42.2(310)	대도시	41.6(305)
셋째 이상	11.4(84)	중·소도시	35.1(258)
어머니의 학력		읍·면지역	23.3(171)
중학교 졸업 이하	0.5(4)	월평균 가구소득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2(222)	100만원 미만	1.0(7)
대학교 졸업 이하	64.7(475)	100-200만원 미만	3.8(28)
대학원 졸업 이상	4.5(33)	200-300만원 미만	18.3(134)
아버지의 학력		300-400만원 미만	28.3(208)
중학교 졸업 이하	0.7(5)	400-500만원 미만	16.5(12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4(194)	500-1,000만원 미만	25.7(189)
대학교 졸업 이하	62.5(459)	1,000-2,000만원 미만	4.8(35)
대학원 졸업 이상	9.8(72)	2,000-3,000만원 미만	1.0(7)
무응답 및 결측값	0.5(4)	4,000만원 이상	0.5(4)
		무응답	0.1(1)
	계(수)		100.0(734)

연구대상 유아와 그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 여아 모두 367명으로 동일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46.3%로 가장 많고, 둘째가 42.2%, 셋째 이상이 11.4%로 연구대상의 약 90%정도가 첫째 혹은 둘째였다. 연구대상의 어머니는 약 49.0%가 취업을 한 상태로 취업을 한 어머니와 하지 않은 어머니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부모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어머니 64.7%, 아버지 62.5%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 유아의 거주지는 대도시가 41.6%, 중·소도시가 35.1%로 연구대상의 약 77%가량이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에 거주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28.3%로 가

장 많았고, 500-1,000만원 미만은 25.7%, 200-300만원 미만이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사용 변수 및 분석 방법

1) 사용변수

가) 유아의 개인 특성

유아의 기질은 Buss, Plomin(1984)의 척도를 박응임(1995)이 번안한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EAS)로 유아의 기질을 부모가 평정하도록 한 척도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서성은 총 5문항으로 '잘 운다,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성은 총 5문항으로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활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유아는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사회성은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친구(혹은 사람)를 쉽게 사귀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유아는 타인과 잘 어울리며 수줍음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본 자료에서는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합산한 후, 평균으로 산출한 변인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Fantuzzo, Sutton-Smith, Coolahan, Manz, Canning, Debnam(1995)의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PIPPS)과 최혜영·신혜영(2008)이 국내적용을 한 자료를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놀이방해는 공격적 행동과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관련한 부정적 차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방해의 점수가 높은 유아일수록 공격적 행동과 자기 통제력 등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며 총 13문항이다. 놀이상호작용은 친사회적 행동, 대인간 기술, 자기 통제, 언어적 주장과 관련된 긍정적 행동으로, 놀이상호작용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상호작용은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단절은 놀이 중 위축되

고 회피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한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단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상호작용과정에서 놀이단절이 많고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고,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자료에서는 각 하위영역의 평균을 산출하여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나) 유아의 일과활동 및 평일 일상생활시간

유아의 평일 활동 시간은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면접용 질문지에서 “OO(이)가 하루(평일 기준)에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하는지 기록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주양육자의 응답값을 사용한다. 본 질문은 유아의 가능한 활동내용을 제시하고 활동여부와 활동시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질문이다.

분석에서는 유아의 활동내용별 활동여부와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활동마다 사용하는 시간의 양의 차이에 따라서 유아의 어휘력 발달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활동내용은 ① 혼자 집안에서 놀기, ② 친구와 놀기(육아지원 기관에서의 시간 제외), ③ 주양육자와 놀기, ④ 형제/자매와 함께 놀기, ⑤ 혼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기, ⑥ 학습지 등 방문교육, ⑦ TV, 비디오 시청, ⑧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⑨ 성인과의 외출, ⑩ 책 읽기 ⑪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 ⑫ 낮잠(육아지원 기관에서의 시간 제외), ⑬기타의 총 13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중 활동하는 유아가 100명 이하인 ‘혼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기(18명)’,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74명)’, ‘낮잠(100명)’, ‘기타(8명)’의 일과활동 내용을 제외하여 총 9개의 항목을 분석하였다.

(2)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 시간은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데이터에는 실제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으로 응답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별로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 변인을 다르게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3에서는 집단별 특성을 알아보고 집단별 유아의 어휘력의 정상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을 아래와 같이 3집단 혹은 2집단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4에서는 연구문제 3에서 차이가 있는

일상생활시간변인을 선정하여 연속변인으로 사용하여 예측변인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표 III-2-2〉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 재코딩

구분	변수 구분
어린이집 이용시간	① 7시간 이하
	② 7시간 초과~10시간 이하
	③ 10시간 초과
혼자 집안에서 놀기, 친구와 놀기, 주양육자와 놀기, 형제/자매와 놀기, 학습지 등 방문교육, TV/비디오 시청,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성인과의 외출, 책 읽기	① 30분 미만
	② 30분~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저녁 수면시간	① 10시간 미만
	② 10시간 이상

다) 수용·표현어휘력

유아의 수용·표현어휘력은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2009)이 표준화된 도구인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VT)를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결과를 사용하였다. REVT 검사결과를 통해서 해당 연령대의 어휘능력과 발달 정도를 측정하고 해석하기 위한 정상성과 이탈 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 평균 및 표준편차 기준, 등가연령 기준, 백분위 기준이 제공된다.

본 분석에서는 연구대상의 수용·표현어휘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 일반적인 경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는 REVT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상성 기준에 맞추어 '정상발달', '유의요망(약간 지체)', '어휘능력 발달지체'의 3개 집단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검사지침서의 정상성 기준의 평균이상 집단을 따로 집단구분 하여, '정상발달(평균이상)', '정상발달', '유의요망(약간 지체)', '어휘능력 발달지체'의 4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라) 유아 성별, 출생순위, 어린이집 설립유형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 여아가 2로 코딩된 데이터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출생순위의 경우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변인은 첫째부터 넷째 이상까지로 4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넷째 이상의 사례수(6명)가 적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1, 둘째 2, 셋째 이상 3으로 재코딩하여 3집단으로 재코딩하여 생성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2)’에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수와 의미는 함께 분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의 범주분석을 따르려고 하였으나 빈도 분석 결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사례수(3명)가 적었다. 따라서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 설치 정의를 기준으로 그 특성이 유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어린이집’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재코딩한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유형 코딩을 국·공립어린이집은 1, 법인어린이집은 2, 직장어린이집은 3, 민간 및 부모협동어린이집은 4, 가정어린이집은 5로 총 5개의 범주로 변인을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연구대상 유아 및 가정의 일반적 배경과 유아의 개인 특성, 평일 일과활동 여부, 일상생활시간, 어휘력발달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을 알아보았다.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여부와 일상생활시간에 따라 유아의 수용 및 표현어휘력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어휘력발달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어휘력발달의 정상성 기준은 유아의 검사 원점수를 사용하여 점수의 높고 낮음으로 집단이 구분된다. 이에 종속변수의 집단 수만을 가지고 다항 로지스틱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어휘력 정상성 기준의 4집단은 ‘평균이상, 정상발달, 약간지체, 발달지체’로 구분되어 순위의 정확한 가중치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평균이상부터 발달지체까지는 점수의 순서로 구분되어 순서척도로 구분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형태의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 중 어휘력발달 잘 예측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가. 유아의 개인특성

1) 유아의 외적 특성

유아의 개인특성은 외적 특성과 내적특성으로 구분되며, 유아의 외적특성은 성별과 출생순위,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유형이다. 유아의 외적 특성의 경향 파악하기 위해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지만, 각 변인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χ^2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출생순위,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첫째 아들은 남아가, 둘째 아들은 여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중인 어린이집은 민간·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여아가, 가정어린이집은 남아가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유아의 외적특성

단위: %(명)

구분	출생순위			어린이집 유형					계(수)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 부모협동	가정	
유아 성별									
남	48.0	40.6	11.4	7.9	12.5	2.7	51.8	25.1	100.0(367)
여	44.7	43.9	11.4	8.7	8.4	2.7	56.9	23.2	100.0(367)

2) 유아의 내적 특성

유아의 내적 특성인 기질과 또래상호작용은 각각의 3개의 하위변인으로 나뉜다. 유아의 기질평균은 정서성이 2.90점, 활동성이 3.83점, 사회성이 2.99점이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중 놀이방해는 평균 2.23점, 놀이상호작용은 3.05점, 놀이단절은 1.60점이다.

〈표 III-3-2〉 유아의 내적특성

단위: 점, 명

구분	기질			또래 상호작용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놀이방해	놀이 상호작용	놀이단절
평균(표준편차)	2.90(.60)	3.83(.60)	2.99(.23)	2.23(.43)	3.05(.41)	1.60(.48)
사례수	715	715	715	734	734	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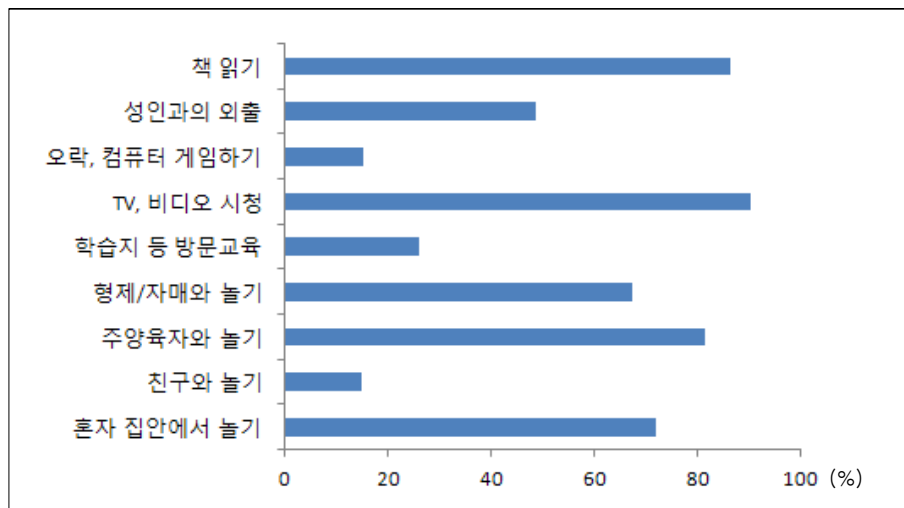
나.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및 일상생활시간

1)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여부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에서 'TV, 비디오 시청'이 90.5%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책 읽기' 86.6%, '주양육자와 놀기' 81.6%, '혼자 집안에서 놀기' 7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구분	단위: %(명)		계(수)
	활동함	활동하지 않음	
혼자 집안에서 놀기	71.9(528)	28.1(206)	100.0(734)
친구와 놀기	14.9(109)	85.1(625)	100.0(734)
주양육자와 놀기	81.6(599)	18.4(135)	100.0(734)
형제/자매와 놀기	67.4(495)	32.6(239)	100.0(734)
학습지 등 방문교육	26.0(191)	74.0(543)	100.0(734)
TV, 비디오 시청	90.5(664)	9.5(70)	100.0(734)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15.3(112)	84.7(622)	100.0(734)
성인과의 외출	48.8(358)	51.2(376)	100.0(734)
책 읽기	86.6(636)	13.4(98)	100.0(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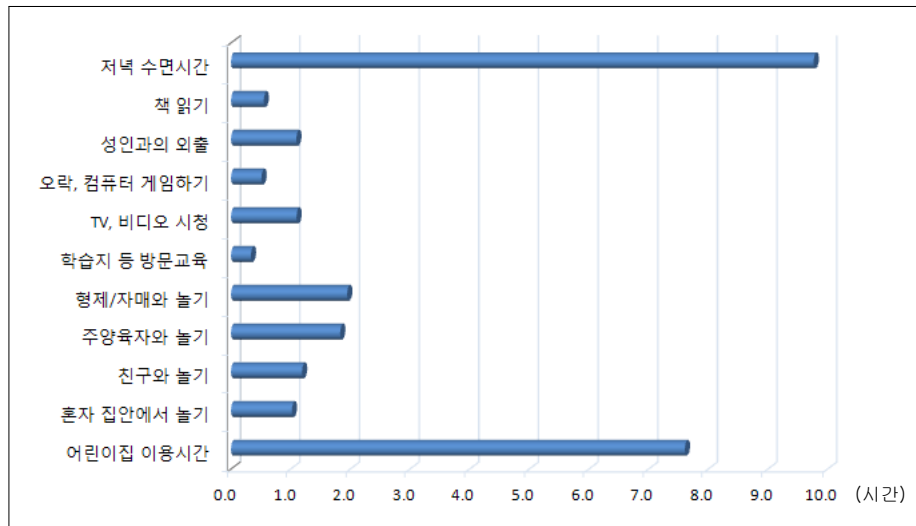
[그림 III-3-1]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2)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저녁 수면시간’이 586.01분(약 9.77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456.50분(약 7.61시간)으로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형제/자매와 놀기’가 116.81분(약 1.95시간), ‘주양육자와 놀기’ 109.75분(약 1.83시간)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4〉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린이집 이용시간	734	456.50	93.29	210	780
혼자 집안에서 놀기	528	61.17	44.85	10	360
친구와 놀기	109	71.38	49.19	10	300
주양육자와 놀기	599	109.75	79.64	8	540
형제/자매와 놀기	495	116.81	70.98	10	360
학습지 등 방문교육	191	19.92	12.58	5	60
TV, 비디오 시청	664	65.81	43.56	10	320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111	30.59	16.78	10	60
성인과의 외출	358	65.66	46.34	5	360
책 읽기	636	32.87	18.94	5	200
저녁 수면시간	734	586.01	49.16	350	750



[그림 III-3-2]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은 기초수면시간인 '저녁 수면시간'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외하고는 사람과 함께하는 놀이시간(주양육자, 형제/자매, 친구)이 1시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TV, 비디오 시청'시간 65.81분(약 1.10시간),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의 시간이 30.59분(약 0.51시간)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TV, 비디오 시청'은 최대로 많이 보는 아동이 320분(약 5.33시간)으로 일상생활시간의 22%이상을 매체시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유아의 수용·표현어휘력

1) 일반적 경향

유아의 수용·표현어휘력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수용어휘력 원점수는 평균 33.17점, 표현어휘력은 29.96점으로 수용어휘력이 3.2점가량 높았다. 수용어휘력의 기초선 문항 평균은 5.41, 표현어휘력 기초선 문항 평균은 4.03으로 수용어휘력은 보통 5~6번 문항이 표현어휘력 4번 문항이 기초선 문항이었다.

수용어휘력의 최고한계선 문항 평균은 47.40로 보통 47~48번이 최고한계선 문항이었으나, 최대로 나온 아동의 경우 108번, 최소로 나온 아동의 경우 6번으로 편차가 컸다. 또한 표현어휘력의 최고한계선 문항 평균은 29.96으로, 보통 29~30번 문항이 최고한계선 문항이었다. 표현어휘력의 경우 최대 68번, 최소 0번으로 수용어휘력보다는 편차가 적긴 하지만, 유아마다 차이는 있었다.

〈표 III-3-5〉 수용·표현어휘력 일반적 경향

구분	단위: 점, 문항					
	원점수	기초선	최고한계선	총실시문항수	정답문항수	오답문항수
수용어휘력(n=734)						
평균	33.17	5.41	47.40	47.40	33.17	14.23
표준편차	15.36	8.28	17.46	17.46	15.36	4.84
최소값	0	1	6	6	0	6
최대값	88	57	108	108	88	42
표현어휘력(n=734)						
평균	29.96	4.03	29.96	44.77	29.96	14.81
표준편차	13.44	6.44	13.44	16.17	13.44	4.96
최소값	0	1	0	6	0	6
최대값	68	47	68	82	68	31

2) 등가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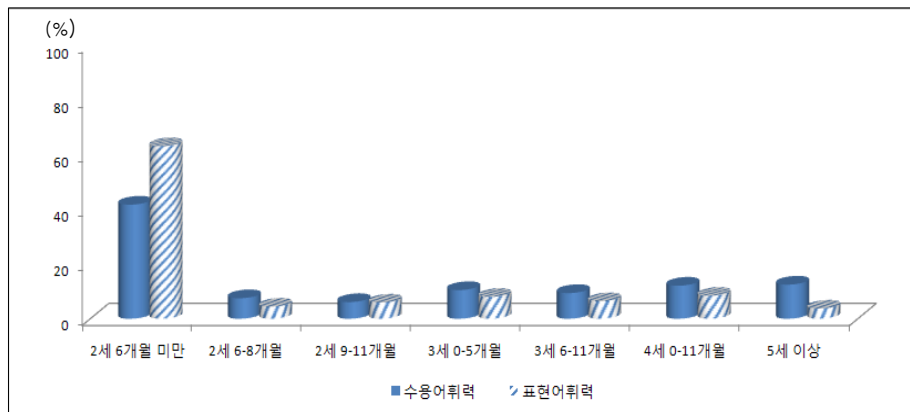
등가연령은 수용 및 표현어휘검사의 획득점수에 따라 발달연령의 기준이 제공되어 정상발달 연령 수준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하는 기준이다 (김영태 외, 2009). 연구대상 유아의 수용어휘력의 등가연령을 살펴본 결과 2세 6개월 미만인 41.8%로 가장 많았고, 5세 이상이 12.5%, 4세 0-11개월이 1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연령과 동일한 등가연령인 비율은 10.5%였다.

표현어휘력의 등가연령은 과반수 이상인 63.2%가 2세 6개월 미만으로 가장 많았다. 등가연령으로 살펴본 연구대상 유아의 전반적인 어휘력 발달 경향은 수용 및 표현어휘력 모두 2세 6개월 미만으로 생활연령인 3세 0-5개월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III-3-6〉 수용·표현어휘력 등가연령

단위: %(명)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2세 6개월 미만	41.8(307)	63.2(464)
2세 6-8개월	7.5(55)	4.4(32)
2세 9-11개월	6.1(45)	5.9(43)
3세 0-5개월	10.5(77)	8.0(59)
3세 6-11개월	9.4(69)	6.4(47)
4세 0-11개월	12.1(89)	8.4(62)
5세 이상	12.5(92)	3.7(27)
계(수)	100.0(734)	100.0(734)



[그림 III-3-3] 유아의 등가연령별 수용 및 표현어휘력

3) 백분위 기준별 분포

어휘능력 발달에 대한 기준의 하나인 백분위 기준으로 연구대상 유아의 수용 및 표현어휘력을 살펴보았다. 수용어휘력의 경우 유아의 23.3%가 90%ile 이상~100%ile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현어휘력의 경우, 10%ile 이상~20%ile 미만이 16.5%로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 30%ile 미만인 경우가 45.6%로 과반수에 가까웠다. 즉 연구대상 유아의 대부분은 본인이 알고 있는 수용어휘력은 높게 나타났으나, 알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하는 표현어휘력에서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3-7〉 수용·표현어휘력 백분위 기준별 분포

구분	단위: %(명), 점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10%ile 미만	14.7(108)	16.2(119)
10%ile이상~20%ile미만	8.7(64)	16.5(121)
20%ile이상~30%ile미만	3.4(25)	12.9(95)
30%ile이상~40%ile미만	7.8(57)	9.4(69)
40%ile이상~50%ile미만	7.2(53)	8.2(60)
50%ile이상~60%ile미만	2.2(16)	4.4(32)
60%ile이상~70%ile미만	8.9(65)	5.9(43)
70%ile이상~80%ile미만	8.2(60)	8.0(59)
80%ile이상~90%ile미만	7.4(54)	7.6(56)
90%ile이상~100%ile미만	23.3(171)	7.8(57)
100%ile 이상	8.3(61)	3.1(23)
계(수)	100.0(734)	100.0(734)

라. 유아의 어휘력 발달의 차이

1) 유아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어휘력 발달의 차이

유아 개인의 외적 특성을 성별, 출생순위, 유아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라 어휘력 발달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의 정상성 기준집단이 차이가 있는지 χ^2 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표현어휘력에서 $\chi^2=10.85(df=3)$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즉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표현어휘력이 차이가 있는데 특히 발달지체인 집단은 열비율 $p<.05$ 의 수준에서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높았다.

유아의 출생순위도 어휘력 발달의 정상성 기준집단이 차이가 있는지 χ^2 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표현어휘력에서 $\chi^2=22.56(df=6)$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 표현어휘력이 차이가 있었는데, 평균이상인 집단은 첫째와 둘째집단과 셋째 이상 집단사이에 열비율이 $p<.05$ 의 수준에서 셋째 이상인 집단의 비율이 낮았다. 약간지체인 집단에서는 첫째집단과 셋째 이상 집단에서 열비율 $p<.05$ 의 수준에서 셋째 이상인 집단의 비율이 높았고, 발달지체의 집단에서는 둘째와 셋째 이상 집단에서 열비율 $p<.05$ 의 수준에서 셋째 이상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즉 표현어휘력의 발달은 평균이상인 집단에서는 첫째와 둘째인 유아가 많은 반면, 약간지체와 발달지체인 집단의 경우 셋째 이상인 유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유아의 외적 특성에 따른 어휘력 발달의 차이

단위: %(명)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약간 지체	발달 지체	계(수)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약간 지체	발달 지체	계(수)
유아의 성별										
남아	55.9	21.3	17.2	5.7	100.0(367)	34.3	32.7	20.2	12.8	100.0(367)
여아	60.5	21.8	13.6	4.1	100.0(367)	39.2	35.7	19.1	6.0	100.0(367)
$\chi^2(df)$	3.20(3)					10.85(3)*				
출생순위										
첫째	61.2	20.0	13.5	5.3	100.0(340)	42.6	30.3	17.1	10.0	100.0(340)
둘째	57.7	21.0	16.8	4.5	100.0(310)	35.5	37.1	20.0	7.4	100.0(310)
셋째 이상	47.6	29.8	17.9	4.8	100.0(84)	17.9	39.3	28.6	14.3	100.0(84)
$\chi^2(df)$	6.89(6)					22.56(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65.6	19.7	13.1	1.6	100.0(61)	42.6	39.3	14.8	3.3	100.0(61)
법인	63.6	14.3	18.2	3.9	100.0(77)	28.6	39.0	23.4	9.1	100.0(77)
직장	60.0	30.0	10.0	0.0	100.0(20)	40.0	40.0	10.0	10.0	100.0(20)
민간 및 부모협동	56.1	22.3	15.0	6.5	100.0(399)	36.8	32.1	20.8	10.3	100.0(399)
가정	57.6	22.6	16.4	3.4	100.0(177)	37.9	34.5	18.1	9.6	100.0(177)
$\chi^2(df)$	na					9.31(12)				

* $p < .05$, ** $p < .01$.

유아의 기질과 또래상호작용의 각 하위요인에 따라 유아의 어휘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유아의 기질 중 사회성은 수용어휘력($\chi^2=9.26$, $df=3$, $p<.05$)과 표현어휘력($\chi^2=13.11$, $df=3$, $p<.01$)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성이 평균 이

하인 유아의 경우 수용어휘력이 정상발달 집단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성이 평균초과인 유아의 경우 표현어휘력이 평균 이상의 발달에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유아의 어휘력 발달은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에서 아동의 기질은 반대적인 경향의 차이를 보인다.

〈표 III-3-9〉 유아의 내적 특성에 따른 어휘력 발달의 차이

단위: %(명)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약간 지체	발달 지체	계(수)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약간 지체	발달 지체	계(수)
정서성										
평균이하	56.4	23.5	15.6	4.5	100.0(367)	36.3	35.1	19.0	9.6	100.0(353)
평균초과	61.0	19.6	14.6	4.7	100.0(367)	38.1	33.1	19.3	9.4	100.0(362)
$\chi^2(df)$	2.04(3)					.39(3)				
활동성										
평균이하	58.0	21.8	15.5	4.6	100.0(367)	37.9	35.1	16.9	10.1	100.0(367)
평균초과	59.5	21.3	14.7	4.6	100.0(348)	36.5	33.0	21.6	8.9	100.0(348)
$\chi^2(df)$.18(3)					2.61(3)				
사회성										
평균이하	56.1	25.2	16.1	2.6	100.0(310)	32.3	40.0	20.6	7.1	100.0(310)
평균초과	60.7	18.8	14.3	6.2	100.0(405)	41.0	29.6	18.0	11.4	100.0(405)
$\chi^2(df)$	9.26(3)*					13.11(3)**				
놀이방해										
평균이하	59.4	22.9	13.0	4.6	100.0(345)	39.7	31.6	19.7	9.0	100.0(345)
평균초과	57.1	20.3	17.5	5.1	100.0(389)	34.2	36.5	19.5	9.8	100.0(389)
$\chi^2(df)$	3.18(3)					2.93(3)				
놀이상호작용										
평균이하	53.8	22.5	16.9	6.8	100.0(355)	29.3	34.1	23.1	13.5	100.0(355)
평균초과	62.3	20.6	14.0	3.2	100.0(379)	43.8	34.3	16.4	5.5	100.0(379)
$\chi^2(df)$	8.43(3)*					24.15(3)**				
놀이단절										
평균이하	61.8	21.2	14.0	3.0	100.0(406)	41.9	34.0	17.7	6.4	100.0(406)
평균초과	53.7	22.0	17.1	7.3	100.0(328)	30.5	34.5	22.0	13.1	100.0(328)
$\chi^2(df)$	10.25(3)*					16.73(3)**				

* $p < .05$, ** $p < .01$, *** $p < .001$.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어휘력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놀이상호작용에서는 수용어휘력($\chi^2=8.43$, $df=3$, $p<.05$)과 표현어휘력($\chi^2=24.15$, $df=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모두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이 평균초과일수록 평균이상의 어휘력을 보이는 유아가 많았다. 놀이단절에도 수용어휘력

($x^2=10.25$, $df=3$, $p<.05$), 표현어휘력($x^2=16.73$, $df=3$,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놀이단절이 평균이하인 유아가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평균이상의 어휘력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즉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위축되거나 회피하는 놀이단절이 적은 유아들이 어휘력발달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2)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여부에 따른 어휘력 발달의 차이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여부에 따라 어휘력의 발달이 차이를 보이는지 x^2 검증으로 살펴보았다. 유아의 수용어휘력이 평일 일과활동에 따라 '혼자 집안에서 놀기($x^2=28.34$, $df=3$, $p<.001$)', '성인과의 외출($x^2=11.50$, $df=3$, $p<.01$)', '책 읽기($x^2=12.78$, $df=3$,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용어휘력의 정상성 기준 집단별로 살펴보면 평균이상인 집단은 혼자 집안에서 놀이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발달지체인 집단은 혼자놀이를 하는 비율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과의 외출은 평균이상인 집단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보다 높았고, 정상발달 집단에서는 반대로 활동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책 읽기의 경우 평균이상 집단은 책을 읽는 비율이 높았으나, 발달지체 집단의 경우 책을 읽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표현어휘력에서는 '책 읽기($x^2=15.83$, $df=3$, $p<.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용어휘력에서와 유사하게 책을 읽는 비율이 평균이상인 집단에서 책을 읽지 않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약간 지체인 집단과 발달지체 집단의 경우는 그 반대로 책을 읽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I-3-10〉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여부에 따른 어휘력 발달의 차이

단위: %(명)

구분	수용어휘력				계(수)	표현어휘력				계(수)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약간 지체	발달 지체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약간 지체	발달 지체	
혼자 집안에서 놀기										
활동함	61.9	20.8	14.8	2.5	100.0(528)	38.3	33.7	18.9	9.1	100.0(528)
활동하지 않음	48.5	23.3	17.0	11.2	100.0(206)	33.0	35.4	21.4	10.2	100.0(206)
$x^2(df)$	28.34(3)**					1.87(3)				
친구와 놀기										
활동함	61.5	19.3	14.7	4.6	100.0(109)	45.0	33.9	12.8	8.3	100.0(109)
활동하지 않음	57.6	21.9	15.5	5.0	100.0(625)	35.4	34.2	20.8	9.6	100.0(625)
$x^2(df)$	0.61(3)					5.50(3)				

(표 III-3-10 계속)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약간 지체	발달 지체	계(수)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약간 지체	발달 지체	계(수)
주양육자와 놀기										
활동함	56.3	22.2	16.4	5.2	100.0(599)	37.7	33.7	19.5	9.0	100.0(599)
활동하지 않음	66.7	18.5	11.1	3.7	100.0(135)	32.6	36.3	20.0	11.1	100.0(135)
$\chi^2(df)$	5.20(3)					1.53(3)				
형제/자매와 놀기										
활동함	57.0	21.0	17.6	4.4	100.0(495)	34.1	35.4	21.4	9.1	100.0(495)
활동하지 않음	60.7	22.6	10.9	5.9	100.0(239)	42.3	31.8	15.9	10.0	100.0(239)
$\chi^2(df)$	5.92(3)					6.14(3)				
학습지 등 방문교육										
활동함	60.2	22.5	13.1	4.2	100.0(191)	40.8	35.1	16.2	7.9	100.0(191)
활동하지 않음	57.5	21.2	16.2	5.2	100.0(543)	35.4	33.9	20.8	9.9	100.0(543)
$\chi^2(df)$	1.46(3)					3.38(3)				
TV, 비디오 시청										
활동함	58.7	20.5	16.0	4.8	100.0(664)	36.4	34.0	19.6	9.9	100.0(664)
활동하지 않음	52.9	31.4	10.0	5.7	100.0(70)	40.0	35.7	20.0	4.3	100.0(70)
$\chi^2(df)$	5.47(3)					2.43(3)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활동함	58.0	19.6	16.1	6.2	100.0(112)	38.4	28.6	20.5	12.5	100.0(112)
활동하지 않음	58.2	21.9	15.3	4.7	100.0(622)	36.5	35.2	19.5	8.8	100.0(622)
$\chi^2(df)$	0.75(3)					2.72(3)				
성인과의 외출										
활동함	64.2	17.3	14.2	4.2	100.0(358)	39.1	36.3	16.5	8.1	100.0(358)
활동하지 않음	52.4	25.5	16.5	5.6	100.0(376)	34.6	32.2	22.6	10.6	100.0(376)
$\chi^2(df)$	11.50(3)**					6.70(3)				
책 읽기										
활동함	60.2	21.2	14.5	4.1	100.0(636)	38.5	34.9	18.4	8.2	100.0(636)
활동하지 않음	44.9	23.5	21.4	10.2	100.0(98)	25.5	29.6	27.6	17.3	100.0(98)
$\chi^2(df)$	12.78(3)**					15.83(3)**				

** $p < .01$, *** $p < .001$.

3)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에 따른 어휘력 발달의 차이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에 따라 수용·표현어휘력 발달이 차이를 보이는지 χ^2 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수용어휘력에서만 ‘책 읽기’활동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7.47$, $df=6$, $p<.01$). 유아의 수용어휘력이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는

1시간 이상 책을 읽는 집단이, 1시간 미만으로 책을 읽는 집단보다 많았다. 그러나 약간지체인 집단의 경우는 1시간 이상 책을 읽는 집단이 1시간 미만으로 책을 읽는 집단보다 적었다. 한편 발달지체인 집단의 경우 1시간 이상인 집단의 비율이 30분-1시간 미만의 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3-11〉 유아의 평일 일상생활시간에 따른 어휘력 발달의 차이

단위: %(명)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약간 지체	발달 지체	계(수)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약간 지체	발달 지체	계(수)
어린이집 이용시간										
7시간 이하	58.1	22.8	14.3	4.9	100.0(329)	40.1	30.1	21.0	8.8	100.0(329)
7시간초과-10시간이하	58.8	20.1	16.1	5.1	100.0(354)	35.9	36.2	18.6	9.3	100.0(354)
10시간 초과	54.9	23.5	17.6	3.9	100.0(51)	21.6	47.1	17.6	13.7	100.0(51)
$\chi^2(df)$	1.48(6)					10.49(6)				
혼자 집안에서 놀기										
30분 미만	62.1	17.2	20.7	0.0	100.0(29)	31.0	41.4	17.2	10.3	100.0(29)
30-1시간 미만	61.2	19.9	17.0	1.9	100.0(206)	35.9	33.5	21.4	9.2	100.0(206)
1시간 이상	62.5	21.8	12.6	3.1	100.0(293)	40.6	33.1	17.4	8.9	100.0(293)
$\chi^2(df)$	4.11(6)					2.77(6)				
친구와 놀기										
30분 미만	87.5	12.5	0.0	0.0	100.0(8)	37.5	50.0	12.5	0.0	100.0(8)
30-1시간 미만	60.0	20.0	12.0	8.0	100.0(25)	32.0	40.0	12.0	16.0	100.0(25)
1시간 이상	59.2	19.7	17.1	3.9	100.0(76)	50.0	30.3	13.2	6.6	100.0(76)
$\chi^2(df)$	na					na				
주양육자와 놀기										
30분 미만	28.6	42.9	28.6	0.0	100.0(7)	42.9	42.9	14.3	0.0	100.0(7)
30-1시간 미만	55.3	19.7	18.4	6.6	100.0(76)	30.3	40.8	21.1	7.9	100.0(76)
1시간 이상	56.8	22.3	15.9	5.0	100.0(516)	38.8	32.6	19.4	9.3	100.0(516)
$\chi^2(df)$	na					na				
형제/자매와 놀기										
30분 미만	75.0	25.0	0.0	0.0	100.0(8)	0.0	37.5	37.5	25.0	100.0(8)
30-1시간 미만	50.8	24.6	24.6	0.0	100.0(61)	41.0	24.6	24.6	9.8	100.0(61)
1시간 이상	57.5	20.4	16.9	5.2	100.0(426)	33.8	36.9	20.7	8.7	100.0(426)
$\chi^2(df)$	na					na				
학습지 등 방문교육										
30분 미만	57.7	25.4	13.8	3.1	100.0(130)	37.7	35.4	16.9	10.0	100.0(130)
30-1시간 미만	67.9	16.1	12.5	3.6	100.0(56)	50.0	35.7	12.5	1.8	100.0(56)
1시간 이상	40.0	20.0	0.0	40.0	100.0(5)	20.0	20.0	40.0	20.0	100.0(5)
$\chi^2(df)$	na					na				

(표 III-3-11 계속)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약간 지체	발달 지체	계(수)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약간 지체	발달 지체	계(수)
TV, 비디오 시청										
30분 미만	69.0	14.3	11.9	4.8	100.0(42)	35.7	35.7	16.7	11.9	100.0(42)
30-1시간 미만	56.3	20.1	17.1	6.5	100.0(199)	32.7	35.7	19.6	12.1	100.0(199)
1시간 이상	58.9	21.3	15.8	4.0	100.0(423)	38.3	33.1	19.9	8.7	100.0(423)
$\chi^2(df)$	4.27(6)					3.36(6)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30분 미만	59.5	16.7	16.7	7.1	100.0(42)	42.9	23.8	19.0	14.3	100.0(42)
30-1시간 미만	58.7	23.9	10.9	6.5	100.0(46)	37.0	32.6	19.6	10.9	100.0(46)
1시간 이상	56.5	17.4	21.7	4.3	100.0(23)	34.8	30.4	26.1	8.7	100.0(23)
$\chi^2(df)$	na					na				
성인과의 외출										
30분 미만	61.5	15.4	19.2	3.8	100.0(26)	30.8	50.0	11.5	7.7	100.0(26)
30-1시간 미만	68.0	16.0	12.0	4.0	100.0(100)	43.0	35.0	16.0	6.0	100.0(100)
1시간 이상	62.9	18.1	14.7	4.3	100.0(232)	38.4	35.3	17.2	9.1	100.0(232)
$\chi^2(df)$	na					3.62(6)				
책 읽기										
30분 미만	54.2	21.8	18.4	5.6	100.0(179)	32.4	35.2	21.8	10.6	100.0(179)
30-1시간 미만	60.2	22.1	15.1	2.5	100.0(357)	38.9	35.0	18.8	7.3	100.0(357)
1시간 이상	71.0	17.0	5.0	7.0	100.0(100)	48.0	34.0	11.0	7.0	100.0(100)
$\chi^2(df)$	17.47(6)**					10.06(6)				
저녁 수면시간										
10시간 미만	57.1	21.9	16.4	4.6	100.0(366)	36.1	35.5	19.4	9.0	100.0(366)
10시간 이상	59.2	21.2	14.4	5.2	100.0(368)	37.5	32.9	19.8	9.8	100.0(368)
$\chi^2(df)$	0.75(3)					0.61(3)				

** $p < .01$.

마. 유아의 어휘력 발달 예측 변인검증

1) 유아의 어휘력 발달 예측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어휘력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유아 개인이나 외부 환경에서 결정할 수 없는 성별과 출생순위를 통제하고, 유아의 내적 특성인 기질과 또래상호작용, 일과활동과 일상생활시간이 유아의 어휘력발달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과 출생순위의 예측을 따로 검증하

고, 이후 각 구분변인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1은 통제 모형으로 성별과 출생순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모형 2는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와 함께 유아의 내적 특성인 기질과 또래상호작용을 함께 투입하여 어휘력발달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모형 3은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와 함께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 여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유의미한 변인을 탐색하였다. 모형 4는 모형 3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분석된 '혼자 집안에서 놀기, 주양육자와 놀기, 책 읽기'에 대한 일상생활시간 변인을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와 함께 투입하여 어휘력발달에 주요한 변인이 무엇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5는 통제모형(모형 1)의 변인인 성별, 출생순위와 모형 2의 기질, 또래상호작용, 모형 3과 4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분석된 일상생활시간 중 '책 읽기'시간을 함께 투입하여 유아의 어휘력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표 III-3-12〉 유아의 어휘력발달 예측모형 구성

모형	투입 변수
1	성별, 출생순위
2	성별, 출생순위, 기질, 또래상호작용
3	성별, 출생순위, 일과활동 여부
4	성별, 출생순위, 일상생활시간(혼자 집안에서 놀기, 주양육자와 놀기, 책읽기)
5	성별, 출생순위, 기질, 또래상호작용, 책읽기시간

2) 유아의 어휘력 발달 예측모형 검증

가) 모형 1: 통제모형

유아의 외적 특성을 통제하고자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를 통제모형으로 먼저 설정하여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용어휘력에서 통제모형(모형 1)의 사례구성은 평균이상 50.0%, 정상발달 21.5%, 약간 지체 15.4%, 발달지체 4.9%로 구성되었다. 표현어휘력은 평균이상 36.8%, 정상발달 34.2%, 약간 지체 19.6%, 발달지체 9.4%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표현어휘력의 집단구성이 수용어휘력보다 집단구성의 비율이 비교적 극단의 모형을 보이지 않아, 보다 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3-13〉 모형 1 (통제모형) 사례요약

단위: 명(%)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사례수	(구성비율)	사례수	(구성비율)
정상성 기준				
정상발달[평균이상]	367	(50.0)	270	(36.8)
정상발달	158	(21.5)	251	(34.2)
유의요망[약간 지체]	113	(15.4)	144	(19.6)
발달지체	36	(4.9)	69	(9.4)
유아 성별				
남	367	(50.0)	367	(50.0)
여	367	(50.0)	367	(50.0)
출생순위				
첫째	340	(46.3)	340	(46.3)
둘째	310	(42.2)	310	(42.2)
셋째 이상	84	(11.4)	84	(11.4)
유효	734	(100.0)	734	(100.0)
결측	0		0	
전체	734		734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는 상수항으로 구성된 절편모형(null moder)과 독립변수를 포함한 회귀모형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χ^2 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면, 절편만을 포함한 모형에 대해 최종모형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김순귀, 정동빈, 박영술, 2008). 모형 1에서 수용어휘력은 모형이 적합하지 않았으나, 표현어휘력은 $\chi^2=19.385(df=3, p<.001)$ 절편모형보다 독립변수인 성별과 출생순위를 투입했을 때, 더 좋은 예측값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4〉 모형 1(통제모형) 적합도 정보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절편모형	모형	절편모형	모형
-2 log 우도	89.239	84.799	120.552	101.167
$\chi^2(df)$	4.44(3)		19.385(3) ^{***}	

^{***} $p < .001$.

수용어휘력은 모형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모수추정치를 살펴보지 않았다. 표현어휘력에서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성별과 출생순위 모두 표현어휘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표 III-3-15〉 모형 1 모수추정치

	B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자유도	PAR 유의확률
수용어휘력					
정상발달[평균이상]	-0.185	0.127	2.12	1	0.145
정상발달	0.422	0.125	11.333	1	0.001
유의요망[약간 지체]	1.061	0.128	68.644	1	0.000
남아					
	0.138	0.079	3.067	1	0.080
첫째	-0.156	0.13	1.44	1	0.230
둘째	-0.106	0.131	0.652	1	0.420
표현어휘력					
정상발달[평균이상]	-0.994	0.138	52.152	1	0.000
정상발달	0.01	0.131	0.005	1	0.941
유의요망[약간 지체]	0.672	0.13	26.565	1	0.000
남아					
	0.25	0.08	9.815	1	0.002
첫째	-0.383	0.136	7.975	1	0.005
둘째	-0.369	0.137	7.274	1	0.007

나) 모형 2

수용어휘력에서 모형 2의 사례구성은 평균이상 50.2%, 정상발달 21.5%, 약간 지체 15.1%, 발달지체 4.6%로 구성되었다. 표현어휘력은 평균이상 37.2%, 정상발달 34.1%, 약간 지체 19.2%, 발달지체 9.5%로 구성되었다.

〈표 III-3-16〉 모형 2 사례요약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사례수	(구성비율)	사례수	(구성비율)
단위: 명(%)				
정상성 기준				
정상발달[평균이상]	359	(50.2)	266	(37.2)
정상발달	154	(21.5)	244	(34.1)
유의요망[약간 지체]	108	(15.1)	137	(19.2)
발달지체	33	(4.6)	68	(9.5)
유아 성별				
남	356	(49.8)	356	(49.8)
여	359	(50.2)	359	(50.2)
출생순위				
첫째	332	(46.4)	332	(46.4)
둘째	301	(42.1)	301	(42.1)
셋째 이상	82	(11.5)	82	(11.5)

(표 III-3-16 계속)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사례수	(구성비율)	사례수	(구성비율)
유효	715	(100.0)	715	(100.0)
결측	19		19	
전체	734		734	

모형 2에서는 모형 1과 달리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에서 모형적합도가 유의하였다. 수용어휘력은 $\chi^2=32.982(df=9, p<.001)$, 표현어휘력은 $\chi^2=60.168(df=9, p<.001)$ 로 절편모형보다 독립변수인 기질과 또래상호작용, 성별과 출생순위를 투입했을 때, 더 좋은 예측값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7> 모형 2 적합도 정보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절편모형	모형	절편모형	모형
-2 log 우도	1531.059	1498.077	1823.398	1763.230
$\chi^2(df)$	32.982(9)***		60.168(9)***	

*** $p < .001$.

모형 2에서 수용어휘력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놀이상호작용이 감소할 때 ($B=-0.265, p<.05$), 놀이단절이 증가할 때($B=0.289, p<.05$) 수용어휘력이 발달지체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는 모형 2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니었다. 표현어휘력에서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유아가 활동성이 낮을 때($B=-0.458, p<.001$), 사회성이 높을 때($B=0.240, p<.05$), 놀이상호작용이 높을 때($B=0.143, p<.05$) 표현어휘력이 발달지체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수용어휘력과 달리 유아의 성별은 표현어휘력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은 아니었으나, 출생순위는 표현어휘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유아가 첫째나 둘째가 아닐 때 표현어휘력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III-3-18〉 모형 2 모수추정치

	B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자유도	PAR 유의확률
수용어휘력					
정상발달[평균이상]	-0.078	0.771	0.010	1	0.920
정상발달	0.546	0.771	0.501	1	0.479
유의요망[약간 지체]	1.229	0.772	2.538	1	0.111
기질					
정서성	-0.071	0.069	1.056	1	0.304
활동성	0.133	0.068	3.763	1	0.052
사회성	0.137	0.182	0.564	1	0.453
또래상호작용					
놀이방해	-0.091	0.106	0.739	1	0.390
놀이상호작용	-0.265	0.120	4.881	1	0.027
놀이단절	0.289	0.112	6.687	1	0.010
남아					
첫째	-0.179	0.134	1.795	1	0.180
둘째	-0.130	0.135	0.934	1	0.334
표현어휘력					
정상발달[평균이상]	-1.363	0.786	3.003	1	0.083
정상발달	-0.338	0.785	0.185	1	0.667
유의요망[약간 지체]	0.348	0.784	0.197	1	0.657
기질					
정서성	-0.092	0.108	0.735	1	0.391
활동성	-0.458	0.123	13.751	1	0.000
사회성	0.240	0.114	4.461	1	0.035
또래상호작용					
놀이방해	-0.057	0.070	0.680	1	0.410
놀이상호작용	0.143	0.069	4.238	1	0.040
놀이단절	0.197	0.185	1.138	1	0.286
남아					
첫째	-0.455	0.140	10.601	1	0.001
둘째	-0.402	0.140	8.199	1	0.004

다) 모형 3

수용어휘력에서 모형 3의 사례구성은 평균이상 50.0%, 정상발달 21.5%, 약간 지체 15.4%, 발달지체 4.9%로 구성되었다. 표현어휘력은 평균이상 36.8%, 정상발달 34.2%, 약간 지체 19.6%, 발달지체 9.4%로 구성되었다.

〈표 III-3-19〉 모형 3 사례 요약

단위: 명(%)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사례수	(구성비율)	사례수	(구성비율)
정상성 기준				
정상발달[평균이상]	367	(50.0)	270	(36.8)
정상발달	158	(21.5)	251	(34.2)
유의요망[약간 지체]	113	(15.4)	144	(19.6)
발달지체	36	(4.9)	69	(9.4)
유아 성별				
남	367	(50.0)	367	(50.0)
여	367	(50.0)	367	(50.0)
출생순위				
첫째	340	(46.3)	340	(46.3)
둘째	310	(42.2)	310	(42.2)
셋째 이상	84	(11.4)	84	(11.4)
유효	734	(100.0)	734	(100.0)
결측	0		0	
전체	734		734	

모형 3에서도 모형 2와 동일하게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에서 모형적합도가 유의하였다. 수용어휘력은 $\chi^2=46.947(df=12, p<.001)$, 표현어휘력은 $\chi^2=39.909(df=12, p<.001)$ 으로 절편모형보다 독립변수인 평일 일과활동 여부, 성별과 출생 순위를 투입했을 때 더 좋은 예측값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0〉 모형 3 적합도 정보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절편모형	모형	절편모형	모형
-2 log 우도	1053.720	1006.773	1213.711	1173.802
$\chi^2(df)$	46.947(12) ^{***}		39.909(12) ^{***}	

*** $p <.001$.

모형 3에서 수용어휘력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혼자 집안에서 놀지 않을 때($B=-0.403, p<.001$), 주양육자와 놀 때($B=0.102, p<.01$), 책을 읽지 않을 때 ($B=-0.027, p<.001$) 수용어휘력이 발달지체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는 모형 3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니었다. 표현어휘력에서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책을 읽지 않을 때($B=-0.030, p<.01$) 표현어휘력이 발달지체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수용어휘력과 달리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

위는 표현어휘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즉 남아일 때, 셋째 이상 일 때 표현어휘력이 발달지체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3-21〉 모형 3 모수추정치

	B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자유도	PAR 유의확률
수용어휘력					
정상발달[평균이상]	-0.540	0.238	5.143	1	0.023
정상발달	0.089	0.237	0.141	1	0.707
유의요망[약간 지체]	0.777	0.236	10.807	1	0.001
일과활동 여부					
혼자 집안에서 놀기	-0.403	0.093	18.874	1	0.000
친구와 놀기	0.001	0.057	0.000	1	0.989
주양육자와 놀기	0.102	0.036	8.084	1	0.004
형제/자매와 함께 놀기	-0.011	0.028	0.166	1	0.684
학습지 등 방문교육	-0.005	0.012	0.222	1	0.638
TV, 비디오 시청	0.011	0.015	0.478	1	0.489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0.007	0.011	0.398	1	0.528
성인과의 외출	-0.013	0.008	2.829	1	0.093
책 읽기	-0.027	0.010	8.085	1	0.004
남아	0.142	0.080	3.134	1	0.077
첫째	-0.135	0.148	0.838	1	0.360
둘째	-0.115	0.133	0.744	1	0.388
표현어휘력					
정상발달[평균이상]	-1.223	0.245	24.863	1	0.000
정상발달	-0.204	0.241	0.713	1	0.398
유의요망[약간 지체]	0.477	0.240	3.952	1	0.047
일과활동 여부					
혼자 집안에서 놀기	-0.094	0.093	1.032	1	0.310
친구와 놀기	-0.071	0.057	1.558	1	0.212
주양육자와 놀기	-0.003	0.036	0.005	1	0.941
형제/자매와 함께 놀기	0.009	0.028	0.096	1	0.757
학습지 등 방문교육	-0.009	0.012	0.552	1	0.457
TV, 비디오 시청	0.027	0.015	3.037	1	0.081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0.010	0.011	0.824	1	0.364
성인과의 외출	-0.007	0.008	0.854	1	0.356
책 읽기	-0.030	0.010	9.382	1	0.002
남아	0.210	0.081	6.717	1	0.010
첫째	-0.322	0.152	4.455	1	0.035
둘째	-0.361	0.138	6.857	1	0.009

라) 모형 4

수용어휘력에서 모형 4의 사례구성은 평균이상 50.4%, 정상발달 22.3%, 약간 지체 14.5%, 발달지체 2.3%로 구성되었다. 표현어휘력은 평균이상 41.0%, 정상발달 34.3%, 약간 지체 17.1%, 발달지체 7.5%로 구성되었다.

〈표 III-3-22〉 모형 4 사례 요약

단위: 명(%)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사례수	(구성비율)	사례수	(구성비율)
정상성 기준				
정상발달[평균이상]	194	(50.4)	158	(41.0)
정상발달	86	(22.3)	132	(34.3)
유의요망[약간 지체]	56	(14.5)	66	(17.1)
발달지체	9	(2.3)	29	(7.5)
유아 성별				
남	191	(49.6)	191	(49.6)
여	194	(50.4)	194	(50.4)
출생순위				
첫째	217	(56.4)	217	(56.4)
둘째	134	(34.8)	134	(34.8)
셋째 이상	34	(8.8)	34	(8.8)
유효	385	(100.0)	385	(100.0)
결측	349		349	
전체	734		734	

모형 4의 모형적합도는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수용어휘력은 $\chi^2=14.753(df=6, p<.05)$, 표현어휘력은 $\chi^2=18.274(df=6, p<.01)$ 으로 절편모형보다 독립변수인 혼자 집안에서 노는 시간, 주양육자와 노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성별과 출생순위를 투입했을 때 더 좋은 예측값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3〉 모형 4 적합도 정보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절편모형	모형	절편모형	모형
-2 log 우도	647.480	632.727	768.585	750.311
$\chi^2(df)$	14.753(6)*		18.274(6)**	

* $p < .05$, ** $p < .01$.

모형 4에서 수용어휘력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책 읽기 시간이 감소할 때 ($B=-0.011, p<.01$) 수용어휘력이 발달지체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는 모형 4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니었다. 표현어휘력에서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책 읽는 시간이 감소할 때($B=-0.011, p<.01$) 표현어휘력이 발달지체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수용어휘력과 달리 유아의 출생순위는 표현어휘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표 III-3-24〉 모형 4 모수추정치

	B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자유도	PAR 유의확률
수용어휘력					
정상발달[평균이상]	-0.372	0.240	2.412	1	0.120
정상발달	0.287	0.237	1.466	1	0.226
유의요망[약간 지체]	1.086	0.243	20.067	1	0.000
일상생활시간					
혼자 집안에서 놀기	0.001	0.001	1.178	1	0.278
주양육자와 놀기	-0.001	0.001	0.687	1	0.407
책 읽기	-0.011	0.003	10.184	1	0.001
남아					
첫째	0.146	0.110	1.759	1	0.185
둘째	0.003	0.200	0.000	1	0.988
셋째	-0.151	0.207	0.532	1	0.466
표현어휘력					
정상발달[평균이상]	-1.337	0.254	27.763	1	0.000
정상발달	-0.336	0.244	1.886	1	0.170
유의요망[약간 지체]	0.305	0.241	1.600	1	0.206
일상생활시간					
혼자 집안에서 놀기	0.000	0.001	0.149	1	0.699
주양육자와 놀기	0.000	0.001	0.280	1	0.597
책 읽기	-0.011	0.003	12.078	1	0.001
남아					
첫째	0.171	0.110	2.395	1	0.122
둘째	-0.338	0.206	2.699	1	0.100
셋째	-0.431	0.213	4.094	1	0.043

마) 모형 5

수용어휘력에서 모형 2의 사례구성은 평균이상 51.8%, 정상발달 21.1%, 약간 지체 14.0%, 발달지체 3.9%로 구성되었다. 표현어휘력은 평균이상 38.9%, 정상발달 34.8%, 약간 지체 18.1%, 발달지체 8.2%로 구성되었다.

〈표 III-3-25〉 모형 5 사례 요약

단위: 명(%)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사례수	(구성비율)	사례수	(구성비율)
정상성 기준				
정상발달[평균이상]	321	(51.8)	241	(38.9)
정상발달	131	(21.1)	216	(34.8)
유의요망[약간 지체]	87	(14.0)	112	(18.1)
발달지체	24	(3.9)	51	(8.2)
유아 성별				
남	299	(48.2)	299	(48.2)
여	321	(51.8)	321	(51.8)
출생순위				
첫째	289	(46.6)	289	(46.6)
둘째	260	(41.9)	260	(41.9)
셋째 이상	71	(11.5)	71	(11.5)
유효	620	(100.0)	620	(100.0)
결측	114		114	
전체	734		734	

모형 5의 모형적합도는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수용어휘력은 $\chi^2=38.276(df=10, p<.001)$, 표현어휘력은 $\chi^2=73.113(df=10, p<.001)$ 으로 절편모형보다 독립변수인 유아의 기질, 또래상호작용, 책 읽는 시간, 성별과 출생순위를 모두 투입했을 때 더 좋은 예측값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6〉 모형 5 적합도 정보

구분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절편모형	모형	절편모형	모형
-2 log 우도	1279.156	1240.880	1549.070	1475.957
$\chi^2(df)$	38.276(10) ^{***}		73.113(10) ^{***}	

*** $p < .001$.

모형 5에서 수용어휘력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놀이상호작용이 낮을수록 ($B=-0.308, p<.05$), 놀이단절이 증가할수록($B=0.336, p<.01$), 책 읽기 시간이 감소할 때($B=-0.007, p<.01$) 수용어휘력이 발달지체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는 모형 5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니었다. 표현어휘력에서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성이 낮을수록($B=-0.164, p<.05$), 놀이상호작용이 줄어들수록($B=-0.592, p<.001$), 놀이단절이 증가할 수록($B=0.261$,

$p<.05$), 책 읽는 시간이 감소할 때($B=-0.009$, $p<.001$) 표현어휘력이 발달지체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수용어휘력과 달리 유아의 출생순위는 표현어휘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모형 4의 모수추정치에서는 유아가 셋째 이상일 때 표현어휘력이 발달지체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3-27〉 모형 5 모수추정치

	B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자유도	PAR 유의확률
수용어휘력					
정상발달[평균이상]	-0.439	0.844	0.271	1	0.603
정상발달	0.193	0.844	0.052	1	0.819
유의요망[약간 지체]	0.877	0.844	1.079	1	0.299
기질					
정서성	-0.096	0.074	1.670	1	0.196
활동성	0.110	0.072	2.312	1	0.128
사회성	0.198	0.198	0.997	1	0.318
또래상호작용					
놀이방해	-0.158	0.115	1.904	1	0.168
놀이상호작용	-0.308	0.131	5.530	1	0.019
놀이단절	0.336	0.123	7.467	1	0.006
일상생활시간					
책 읽기	-0.007	0.002	8.754	1	0.003
남아					
첫째	-0.128	0.144	0.788	1	0.375
둘째	-0.158	0.145	1.187	1	0.276
표현어휘력					
정상발달[평균이상]	-2.913	0.865	11.331	1	0.001
정상발달	-1.855	0.862	4.632	1	0.031
유의요망[약간 지체]	-1.156	0.859	1.812	1	0.178
기질					
정서성	-0.164	0.075	4.811	1	0.028
활동성	0.057	0.073	0.603	1	0.438
사회성	0.159	0.200	0.633	1	0.426
또래상호작용					
놀이방해	-0.151	0.116	1.695	1	0.193
놀이상호작용	-0.592	0.135	19.277	1	0.000
놀이단절	0.261	0.124	4.400	1	0.036
일상생활시간					
책 읽기	-0.009	0.002	14.752	1	0.000
남아					
첫째	-0.463	0.150	9.528	1	0.002
둘째	-0.424	0.151	7.906	1	0.005

4.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 0개월~5개월 사이 유아의 어휘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고, 유아의 개인적 특성, 평일 일과활동과 일상생활시간에 따라 수용·표현어휘력의 차이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의 어휘력발달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해서 검증해보았다. 다음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유아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 모두 2세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등가연령으로 살펴본 연구대상 유아의 전반적인 어휘력 발달 경향은 수용 및 표현어휘력 모두 2세 6개월 미만으로 생활연령인 3세 0-5개월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유아가 남아일 때 표현어휘력 발달이 지체인 경우가 많았고,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경우 표현어휘력 발달이 약간지체이거나 발달지체인 경우가 많았다.

유아의 기질은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에서 반대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유아의 기질이 활발하거나 사회성이 높을 때 표현어휘력에서 더 긍정적인 발달을 보였으나, 기질이 활발하지 않거나 사회성이 다소 낮을 때 오히려 수용어휘력의 발달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였다. 이는 유아의 외향적 기질과 내향적 기질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중에서는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모두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이 평균보다 높을수록 어휘력이 평균이상인 유아가 많았다. 놀이단절이 평균보다 적은 유아일수록 유아의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평균이상인 유아가 많았다. 즉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위축되거나 회피하는 놀이단절이 적은 유아들이 어휘력발달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어휘력 발달을 돕기 위해서 유아의 기질과 또래상호작용의 경향성에 따라 접근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부모와 교사교육을 통해 유아의 기질별 상호작용의 방식에 대한 강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유아의 평일 일과활동은 'TV, 비디오 시청'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책 읽기와 주양육자와 놀기, 혼자 집안에서 노는 것으로 평일 일과활동을 보내고 있었다. 평일 일과활동 중 일상생활시간은 저녁 수면시간이 약 9.8시간, 어린이집 이용시간 약 7.6시간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형제/자매와 놀이 시

간 약 2.0시간, 주양육자와 노는 시간 약 1.8시간으로 약 3~4시간을 평일 일과시간 중 놀이로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TV, 비디오 시청시간이 약 1.1시간, 오락,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이 약 0.5시간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TV, 비디오 시청의 경우 5시간 이상을 보는 유아도 있어서, 그 유아의 경우는 일상생활시간의 22%이상을 매체시청으로 보내고 있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아동의 생활시간에 따라서 문제행동발달(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위축감, 비행, 공격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은 TV 시청시간이, 고등학생은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송요현, 2012). 이는 생애주기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체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연구대상의 연령은 다르나 유아기에도 매체시청이 아동의 발달, 특히 문제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예측해볼 수 있는 여지를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아의 전인격적인 건강한 발달을 위해 매체활용 및 시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 작게는 가정에서 시행하기 위해 매체활용의 적절한 정도와 방법 등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들은 유아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모르는데서 유아들이 원하는 매체를 시청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체시청시간을 줄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생애주기별 교육과정과 공동육아방 등을 통해서 전문적인 강사를 발굴하여, 실제적이고 손쉬운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법을 훈련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또한 유아에게는 아버지의 놀이와 어머니의 놀이가 차이가 있다(EBS 놀이의 반란 2 아빠놀이 엄마놀이, 2012). 그러나 상당수 아버지와의 놀이보다는 어머니와의 놀이에만 익숙하여 균형 잡힌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내 아버지교육 강화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족 사랑의 날' 등의 현실화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미래사회 인재육성에 가정과 기업, 국가가 함께 공조해야할 것이다.

수용어휘력의 발달이 평균이상인 유아는 혼자 집안에서 놀이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발달지체인 집단은 혼자놀이를 하는 비율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어휘력 발달이 평균이상인 유아들이 성인과 외출이 많았고, 수용어휘력 정상발달 집단에서는 반대로 활동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책 읽기의 경우 수용어휘력이 평균이상인 유아는 책을 읽는 비율이 높았으나, 발달지체 집단의 경우 책을 읽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표현어휘력에서는 수용어휘력에

서와 유사하게 책을 읽는 비율이 표현어휘력이 평균이상인 유아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높았으나, 약간 지체인 집단과 발달지체 집단의 경우는 그 반대로 책을 읽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과활동 및 일상생활시간은 혼자 놀이시간 여부와 성인과의 외출 여부, 책읽기를 하는지와 그 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일상생활 중 어휘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학습지 등 방문교육에 따라서는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모두에서 차이가 없었다. 유아의 어휘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은 단연 '책 읽기'였다. 특히 표준화집단의 기준으로 어휘력 발달의 지체로 구분된 집단의 경우 책 읽는 비율이 낮았는데, 유아의 어휘력 발달을 위해서 부모와의 책읽기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의 활용이 좀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도서관 등 시설이용의 접근성이 좋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이동도서관' 등의 사업을 시행 및 확대하고, 각 지역에 있는 학교나 육아지원기관의 도서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개방성이 보장된 도서관 운영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책읽기 프로그램 등의 부모교육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모형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은 유아의 성별은 출생순위나 유아의 기질, 또래상호작용 등 유아의 특성을 형성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영향력에 따라서 어휘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유아가 남아이기 때문에 어휘발달이 더 느리거나 혹은 여아이기 때문에 어휘발달이 더 빠른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출생순위의 경우는 다른 독립변인들과 더불어 어휘발달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표현어휘력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출생순위를 통해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환경요소들, 즉 일상생활패턴이나 기관의 이용, 형제/자매와의 놀이시간과 주양육자와 노는 시간의 비율의 변화 등에서 표현되는 어휘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어휘력발달을 보지 않고 출생순위에 따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 상당수가 외동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형제/자매와의 놀이시간'에 따라 어휘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형제/자매와의 놀이시간과 유사할 수 있는 이웃의 또래

와의 놀이참여의 장을 활성화 하는 것은 유아의 어휘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사회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에 도움일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방 같은 사업은 비슷한 또래간의 나눔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유아지원기관의 혼합연령반 구성도 유아의 어휘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형비교를 통한 또 하나의 결론은 유아의 기질보다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이다. 물론 유아의 기질적 반응을 통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의 기질 또한 어휘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만3세 유아의 어휘력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에서는 또래상호작용이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어휘력 발달에 있어서 일관적인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책을 읽는지의 여부와 책을 읽는 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외국어나 한글 등의 학습을 위해서 이용되는 학습지 등의 방문교육은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으며, 이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인 특성과 평일 일과활동, 일상생활시간 등이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연구의 경향성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왔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아의 기질이나 또래상호작용, 출생순위 등이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휘력 발달에서 학습지 등의 사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서, 또는 본인의 심리적 안위를 위해서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중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습지 하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이 동일한 어휘력 발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아에게 학습지와 책읽기는 이미 시작부터 다른 출발선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학습지는 '학습'을 위한 것이고 책읽기는 '놀이'를 위한 다른 출발선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자라가고,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유아의 긍정적인 어휘력 발달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경험들을 유아를 위한 출발선으로 달라져야 한다. 즉 유아가 즐기고, 스스로 생각할 힘을 키워낼 수 있을 때에 긍정적인 발

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통해 유아의 일상생활에 바람직한 경험을 증가시키고, 육아지원기관 및 부모에게 유아를 위한 평일 일상생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이미 많은 부모와 교사 등 유아에게 근접해있는 성인들은 유아를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것은 진정으로 유아의 발달에 바람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험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인자·김혜연(2005).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시간 사용 및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9(4), 1-19.
- 김기현·이경상(2006). 청소년 생활시간 사용실태 및 변화.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반재·장성오(2011). 일반부모양육 영아와 조부모양육 영아의 언어발달 차이,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5(1), 207-221.
- 김순귀·정동빈·박영술(2008). SPSS를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VT) 검사 지침서.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화(2012). 영유아의 생활시간 및 부모-자녀 공유시간 실태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나영주·황진숙·이은희·고선주·박선희(2005). 청소년 생활시간의 내용과 유형에 따른 인터넷 이용. 대한가정학회지, 43(12), 15-28.
- 류지수(2007). 가구특성과 남녀 청소년의 생활시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

- 학술대회 자료집, 447-452.
-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송요현(2012). 아동의 생활시간과 문제행동발달의 관계. 제5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41-5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신나리·김영원(2010). 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정재기(2008). 생활시간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의 비교. *조사연구*, 9(1), 43-68.
- 진미정(2008).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0(3), 187-211.
- 진미정·이윤주(2010).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 양태. *대한가정학회지*, 48(6), 43-56.
- 최혜영·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통계개발원(2008). 생활시간조사 방법론 개선방안. 대전: 통계개발원.
- EBS(2012. 6.26). EBS 다큐프라임: 놀이의 반란 2부, 아빠놀이 엄마놀이.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docuprime&menu_seq=1&enc_seq=3112921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C., Manz, P. H., Canning, S., & Debnam, D.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IV. 둘째 자녀 출산 의도와 출산 이행

왕 영 희³⁾

이 예 진⁴⁾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인간의 삶은 많은 부분이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한 세대 이전 만해도 결혼, 임신, 출산관련 행동이 선택이라기보다는 인생의 과정에서 성인이 되는 자연스런 입문식의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부부가 되는 것을 선택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결혼을 선택하였더라도 부모가 되는 것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토대로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의도된 행동으로 여기고 있다.

의도와 행동에 대하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주제에 적용되고 있는,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에 의하면 행동을 가장 가까이서 예측하는 선행요인은 의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이라는 행동이 심리학적인 견지에서의 '행동'과는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이기에 (차재호, 1988), 출산 의도와 이행에는 괴리가 있으며, 그 사이에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

신생아를 그 가구의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구분한 통계에 의하면, 2011년에는 첫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출산율이 각각 50.74%와 10.95%로 예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둘째아의 경우 37.97%로 2010년보다 하락하였다(연합뉴스, 2012, 3, 12). 이러한 출산율은,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두는 것은 결혼으로 인한 첫 자녀 출산의 기대와 사회적 관습 등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둘째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고민과 계획을 하며, 둘째 자녀 출산 행동 이후에는 셋째 이상을 고려하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

3) 육아정책연구소 위촉 부연구위원

4) 육아정책연구소 위촉 연구원

해준다.

전통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접근은, 인구학적 접근방법, 경제학적 접근방법,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방법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전통적인 접근방법 외에 최근의 연구들은 자녀 가치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 특성, 가족사건, 자녀 특성 및 육아지원정책 등이 출산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출산율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 중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 변인은 어머니의 연령(서문희, 2010; 이성용, 2009; 차승은, 2008)과 결혼 기간(박수미, 2006) 및 어머니의 취업(서문희, 2010)으로, 부모의 연령이 낮고, 결혼 기간이 짧으며,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자녀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지위, 즉 가구의 소득 수준이다. 가구의 경제적 지위와 출산율과 관련하여 소득 증대와 출산율의 부적 상관관계 가설을 지지하는 선행연구들은(김두섭, 차승은, 송유진, 천희란, 김정석, 2007; 차경욱, 2005), 한자녀 가구 중 후속출산 계획이 없는 가구는 후속출산이 있는 가구에 비해 대체적으로 소득과 소비 수준이 높고, 자녀양육비와 교육비가 둘 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이정림 외, 2011) 조사에서 후속출산 의도가 없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9.5%가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이라는 경제 관련 이유에 응답하였다. 즉, 후속출산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집단에겐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등 자녀를 위해 지출되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보육 및 교육비 지출 수준이 후속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신윤정, 2008)와 소득 수준은 후속출산 의도와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서문희, 2010)도 있다. 기혼여성의 완결출산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김현숙, 류덕현, 민희철, 2006)에서는 대상 연령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자녀수가 증가하였지만,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는 가구 소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가치관도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 변인 중 하나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강하면 자녀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유진, 2007; 이인숙, 2005, 이정원 2009). 자녀의 가치관 중에서도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높게 인지할수록 둘째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두섭 외, 2007).

행동의 계획과 의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환경과 행동의 통제에 대한 자기효

능감 같은 심리적 특성이 행동의 계획과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Schawrzler와 Luszczynska, 2012). 후속출산 의도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부부의 특성에 대한 연구(송영주, 이주옥, 김춘경, 2011)에서는 높은 결혼만족도와 낮은 부부갈등이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구대체 수준의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대로 진입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에 대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자녀 이상의 출산에 중점을 둔 다자녀 출산 정책의 확산이 요구되며 정책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관련 연구들의 대다수는 출산 계획 및 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강유진, 2007; 김정석, 2007; 박수미, 2008; 서문희, 2010; 송영주, 이주옥, 김춘경, 2011; 신윤정, 2008; 이정원, 2009; 차승은, 2008), 실제 출산 행동에 관한 연구들(김정현, 조형태, 2012; 김현숙, 류덕현, 민희철, 2006; 박수미, 2006; 이성용, 2009)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아보다는 둘째아 출산이 보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강유진, 2007; 김정석, 2007; 박수미, 2006, 2008)를 바탕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첫째아 출산 이후 후속출산을 의도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가구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의 장점을 활용하여 1~3년 후 실제출산을 이행한 집단과 미이행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후속출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출산 이행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이후 다자녀 출산을 위한 정책 지원의 방향성 제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따라서 출산 이행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둘째 자녀 출산 의도/이행 집단과 둘째 자녀 출산 의도/미이행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둘째 자녀 출산 의도 집단에서 출산 이행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가. 분석 자료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1차(2008년) ~ 4차(201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 현재 5차 조사를 실행한 상태이다.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한 가구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개인, 가족, 사회, 경제 등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저출산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2006년 6월에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정책의 수혜자들이라는 시대적인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패널 가구 중 1차 ~ 4차년도에 모두 참여한 1,551가구 중 패널 아동에 해당하는 첫째 자녀 출산 이후, 한 번이라도 후속출산을 의도하고 있다고 응답한 715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나. 사용 변수 및 분석 방법

1) 집단변수 및 용어 정의

본 연구의 집단변수는 첫째 자녀 출산 후 후속 출산 의도에 따른 출산 이행 여부로 구분된다. 후속 출산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후속출산계획 유무를 어머니 대상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후속 출산 이행 여부는 패널 아동이 '첫째인 한자녀 가구에 각 조사 연도별로 둘째 자녀의 출생이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이 집단변인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시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다.

2008년 첫아이들(패널 대상 아동) 출산하고,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후속 출산 의도가 있다고 응답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반대로 2008년 첫아이들 출산하고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후속출산 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4차년도 조사가 완성된 2011년까지 후속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를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행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2) 검정변수

본 연구에서는 후속출산 관련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검정한 변인들의 측정에 사용된 도구를 <표 IV-2-1>과 같이 범주화 하였다.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과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집단 간 특성의 차이 검증에 사용된 이 변인들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독립변인 또는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표 IV-2-1> 검정변인과 측정도구

	하위변인	도구 및 출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의 연령	-
	결혼상태 유지기간(개월)	-
	가계 소득	-
	자가 주택 소유 여부	-
	어머니의 취업여부	-
자녀가치	어머니의 이상적인 자녀수	이삼식 외(2005)
	부모의 자녀 가치 (정서적, 도구적 가치)	이삼식 외(2005)
	자녀양육비 비율	총 가구지출 대비 자녀에 대한 지출생성
자녀변인	첫 아이의 성별	-
	기질	EAS 기질척도(Buss & Plomin, 1984).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자이존중감	Rosenberg 자이존중감척도(Rosenberg, 1989)
	자기효능감	Pearlin 자기 효능감 척도(Pearlin, Lieberman, Menaghan, & Mullan, 1981)
	우울	Kessler 우울 척도(K6)(Kessler, Andrew, Cople, Hiripi, Mroczek, Normand, Walters, & Zaslavsky, 2002).
부부 특성	결혼만족도	RKMSS(Chung, 2004)
	부부갈등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
양육지원	아버지의 양육참여	강희경(1998), 홍성례(1995)
	사회적 지원(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한국아동패널(조복희 외, 2009) 자체 제작

다. 분석방법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들 중 한자녀 가구를 선택한 후 4차년도까지의

후속출산 의도에 따른 둘째 자녀 출산의 이행 및 미이행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특성을 독립변인별로 t 검증 하였다. 가계 소득, 자녀양육비 비율은 로그 값을 적용하였으며, 주택소유 여부,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첫 아이의 성별은 더미화하였다. 둘째 자녀 출산의 이행 또는 미이행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도/미이행 집단을 1, 의도/이행 집단을 0으로 코딩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예측변인들은 1 ~ 4차에 걸쳐 조사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마지막 출산의도 시기에 조사된 데이터를 투입하였다.

3. 연구결과

가.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따른 출산 이행

전체 패널 가구 중, 패널 아동이 '첫째'인 한자녀 가구의 출산 의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1>과 같다. 한자녀 가구의 후속 출산 의도는 2008년 53.3%, 2009년도 64.2%, 2010년도 57.6%, 2011년도 34.8%로 2차년도에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후속 출산을 실행한 가구 수가 증가하므로 계획된 출산의 이행으로 인한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낳지 않겠음의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1> 출산 의도 변화

구분	단위: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낳겠음(또는 임신 중)	53.3(381)	64.2(459)	57.6(412)	34.8(249)
낳지 않겠음	14.0(100)	19.7(141)	33.3(238)	55.5(397)
잘모름/무응답	32.7(234)	16.1(115)	9.1(65)	9.7(69)
계(수)	100.0(715)	100.0(715)	100.0(715)	100.0(715)

한자녀 가구 중 후속출산을 의도하고 이를 언제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본 표는 <표 IV-3-2>와 같다. 2008년 출산을 의도하고 2009년~2011년 사이에 둘째 자녀를 출생한 집단은 의도한 가구의 62.2%, 2009년 출산을 의도하고 2010년~2011년 사이에 출산한 집단은 의도 가구의 58.8%, 2010년 출산을 의도하고 2011년

후속출산을 한 집단은 41.7%에 해당한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첫아이를 출산한 후, 둘째를 의도한 집단 중 연년생으로 2009년에 자녀를 출산한 집단은 3.8%였으며, 첫아이와 2~3년 차이를 두고 동생을 출산한 집단은 각각 47.7%, 48.5%로 나타났다. 2009년에 한자녀 가구이며 후속출산을 의도한 집단에 있어서도 2010년에 53.0%, 2011년에 47.0%가 후속출산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첫아이와 둘째 자녀의 터울이 통상적으로 2~3년 정도라고 알려진 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표 IV-3-2> 출산 의도 후 후속 출산 이행율과 이행시기

구분	단위: %(명)		
	2008년 의도	2009년 의도	2010년 의도
후속 출산 의도/미이행	37.8(144)	41.2(189)	58.3(240)
후속 출산 의도/이행	62.2(237)	58.8(270)	41.7(172)
2009년 출산	3.8(9)	-	-
2010년 출산	47.7(113)	53.0(143)	-
2011년 출산	48.5(115)	47.0(127)	100.0(172)
계(수)	100.0(381)	100.0(459)	100.0(412)

나. 둘째 자녀 출산 의도/이행 집단과 둘째 자녀 출산 의도/미이행 집단 간의 차이

첫 자녀 이후 둘째 자녀의 후속 출산에는 현실적인 상황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에서 정의한 두 집단이 연차별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집단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를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VI-3-3>과 같다. 2011년을 기준으로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집단과 출산하지 않은 집단의 부모의 연령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후속출산을 이행하지 않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혼 유지기간에 있어서도 둘째를 출산하지 않은 집단의 결혼 기간이 출산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Morgan이 지적했듯이, 출산은 “가역(可逆)이 불가능한, 시간 제한적인 순서가 있는 사건이므로”(Torr & Short, 2004, p.118 재인용) 생물학적 연령(Torr & Short, 2004)과 결혼기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IV-3-3〉 후속출산 의도집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단위: 명, 만원

구분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후속출산 의도/이행		t	
	n	M(SD)	n	M(SD)		
2011년 어머니 연령(세)	353	32.89(3.85)	356	32.15(3.19)	-2.79**	
2011년 아버지 연령(세)	349	35.22(4.28)	353	34.45(3.45)	-2.63**	
2011년 결혼상태 유지기간(년)	351	5.38(2.31)	358	4.76(1.54)	-4.21***	
가계 소득	2008년	354	5.66(.43)	361	5.58(.66)	-2.05*
	2009년	350	5.70(.51)	357	5.67(.45)	-0.91
	2010년	354	5.76(.51)	361	5.69(.53)	-1.93
	2011년	354	6.01(.74)	360	5.93(.65)	-1.40
자가 주택 소유 여부	2008년	324	0.39(.49)	324	0.35(.48)	-0.90
	2009년	354	0.39(.49)	361	0.35(.48)	-0.98
	2010년	354	0.45(.50)	361	0.40(.49)	-1.28
	2011년	354	0.47(.50)	361	0.42(.49)	-1.51
어머니의 취업여부	2008년	354	0.36(.48)	361	0.28(.45)	-2.35*
	2009년	350	0.40(.49)	358	0.30(.46)	-2.67**
	2010년	354	0.42(.50)	361	0.26(.40)	-4.66***
	2011년	354	0.45(.50)	360	0.29(.45)	-4.50***

* $p < .05$, ** $p < .01$, *** $p < .001$.

로그 값을 적용한 가계 소득의 경우 2008년 응답에서만 후속출산을 이행하지 않는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차이를 분석한 자가 주택의 소유 여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과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모를 포함한 취업모 집단과 비취업모 집단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둘째아를 출산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취업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후속출산 의도와 관련 없이 자녀의 이후 출산 이행에 관련된 중요 변수가 됨을 유추할 수 있다.

후속출산 의도와 이행 여부에 따라 각 집단의 자녀가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어머니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는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이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집단에 비해 차수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첫 자녀 출산 이후 후속 출산을 이행한 집단의 경우 이행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에게 갖고 있는 정서적, 도구적 가치에 있어서도 출산 의도/이행 집단이, 출산 의도/미이행 집단에 비해 연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값을 나타냈다. 즉,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한 집단이 출산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녀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로그 값을 취하여 계산된 전체 가구의 총 소비 비용 중 자녀에 대한 지출 비용을 살펴본 결과는, 가구 총 소비 중 자녀 지출 비율이 2011년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아동패널 2012 보고서(김은설 외, 인쇄중)를 위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기초분석에서 첫째 자녀에 해당하는 패널 아동들의 취원율이 4차년도에 86%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지원 기관이용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흥미로운 점은 전체 가구 총 소비 비용 중 자녀에 대한 지출 비율이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과 의도/미이행 집단에서 연차에 걸쳐 모두 70%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아동패널 2012 보고서(김은설 외, 인쇄중)에 제시된, 전체 4차년도 참여 패널 가구의 자녀 양육비 비율이 40%라는 점에 비추어, 실제 출산 이행여부에 관련 없이 후속출산을 의도한 집단이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소비 지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3-4〉 후속출산 의도집단의 자녀가치

단위: 명, 점

구분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후속출산 의도/이행		t
	n	M(SD)	n	M(SD)	
어머니의 이상적인 자녀수	2008년	345 2.21(.61)	354 2.47(.69)	5.19 ^{***}	
	2009년	348 2.27(.68)	358 2.49(.68)	4.17 ^{***}	
	2010년	348 2.27(.66)	355 2.41(.65)	2.74 ^{**}	
	2011년	316 2.21(.66)	321 2.35(.62)	2.75 ^{**}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	2008년	324 4.41(.55)	324 4.51(.49)	2.27 [*]	
	2009년	354 4.28(.60)	360 4.38(.56)	2.29 [*]	
	2010년	354 4.23(.61)	361 4.34(.60)	2.48 [*]	
	2011년	354 4.28(.03)	359 4.34(.03)	1.38	
어머니의 도구적 자녀가치	2008년	324 2.86(.78)	324 2.95(.77)	1.55	
	2009년	354 2.76(.80)	360 2.94(.75)	3.01 ^{**}	
	2010년	354 2.75(.76)	361 2.90(.75)	2.82 ^{**}	
	2011년	354 2.78(.74)	359 2.84(.78)	2.93 ^{**}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	2008년	291 4.46(.57)	298 4.61(.42)	3.68 ^{***}	
	2009년	342 4.46(.50)	349 4.53(.51)	1.78	
	2010년	343 4.43(.57)	351 4.49(.56)	1.41	
	2011년	341 4.45(.55)	344 4.53(.50)	1.82	

(표 IV-3-4 계속)

구분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후속출산 의도/이행		t	
	n	M(SD)	n	M(SD)		
아버지의 도구적 자녀가치	2008년	291	3.11(.82)	298	3.21(.76)	1.59
	2009년	342	3.20(.78)	349	3.34(.76)	2.37*
	2010년	342	3.23(.74)	351	3.26(.78)	0.56
	2011년	338	3.09(.77)	343	3.18(.79)	1.52
자녀 양육비 비율	2008년	327	73.80(14.09)	341	72.42(15.13)	-1.22
	2009년	354	67.44(16.04)	361	67.45(15.70)	0.00
	2010년	354	69.50(9.95)	361	68.40(9.85)	-1.48
	2011년	354	70.75(14.44)	361	78.44(14.05)	7.23***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자녀가 지닌 특성의 차이를 둘째 자녀 출산 의도/이행 집단과 의도/미이행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IV-3-5>와 같다. 첫 자녀의 성별에 따른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과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기질에서는 2011년도에 측정된 부정적 정서성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2011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첫째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더 높았다. 이는 첫 아이인 패널대상 아동이 만 3세가 되면서 어머니들이 첫째 자녀에게서 부정적 정서성을 더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V-3-5> 후속출산 의도집단의 첫째 자녀요인

단위: 명, 점

구분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후속출산 의도/이행		t	
	n	M(SD)	n	M(SD)		
자녀 성별	354	1.48(.50)	361	1.47(.50)	-0.32	
기질: 부정적 정서성	2008년	354	2.75(.63)	361	2.75(.63)	-0.03
	2009년	354	2.71(.64)	359	2.67(.65)	-0.84
	2010년	354	2.83(.63)	361	2.84(.63)	0.34
	2011년	354	2.82(.61)	361	2.94(.62)	2.73**
기질: 활동성	2008년	354	3.79(.55)	360	3.80(.54)	0.39
	2009년	354	3.98(.60)	359	4.01(.57)	0.71
	2010년	354	3.96(.59)	361	3.96(.60)	0.02
	2011년	354	3.84(.61)	361	3.86(.61)	0.41

** $p < .01$.

한국아동패널 2차와 3차년도 조사 결과, 후속 출산 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어머니 본인이 71%로 가장 많았으므로(이정림 외, 2010), 후속 출산 이행에 있어 어머니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과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집단의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3-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으로 선택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우울 요인은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집단과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3-6> 후속출산 의도 어머니의 심리요인

단위: 명, 점

구분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후속출산 의도/이행		t
		n	M(SD)	n	M(SD)	
자아 존중감	2008년	322	3.56(.41)	324	3.54(.38)	-0.64
	2009년	354	3.54(.42)	358	3.53(.38)	-0.43
	2010년	354	3.52(.41)	360	3.50(.39)	-0.73
	2011년	353	3.66(.60)	361	3.62(.58)	-0.91
자기 효능감	2008년	322	3.85(.70)	324	3.80(.67)	-0.77
	2009년	354	3.75(.75)	358	3.75(.70)	-0.03
	2010년	354	3.75(.74)	361	3.69(.69)	-1.21
	2011년	353	2.34(.71)	361	2.32(.73)	-0.38
우울	2008년	321	11.72(4.44)	323	11.52(4.24)	-0.59
	2009년	353	11.07(4.35)	358	11.19(3.95)	0.40
	2010년	352	11.68(4.09)	360	12.06(4.22)	1.22
	2011년	353	11.86(4.67)	361	11.98(4.71)	0.35

주: 자기효능감 점수는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의미함.

후속출산을 의도하고 이행한 집단과 의도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집단의 부분관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7>과 같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서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집단보다 일관성 있게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반면 부부갈등은 일관성 있게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어머니 결혼만족도의 경우, 첫 아이인 패널 아동의 출산해인 2008년과 영아기인 2009년에는 출산 의도/이행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년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2009년에만 출산 의도/이행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부갈등에 있어서는,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의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짝수 년도에서 유의미하게 낮았고, 아버지의 부

부갈등은 홀수년도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표 IV-3-7〉 후속출산 의도 부부의 특성

단위: 명, 점

구분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후속출산 의도/이행		t	
	n	M(SD)	n	M(SD)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2008년	324	3.90(.73)	324	4.02(.72)	2.14*
	2009년	352	3.91(.83)	361	4.04(.78)	2.08*
	2010년	352	3.89(.73)	361	3.95(.77)	1.11
	2011년	351	3.72(.75)	361	3.81(.71)	1.63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	2008년	290	4.37(.65)	299	4.44(.64)	1.35
	2009년	340	4.36(.73)	346	4.46(.61)	1.97*
	2010년	342	4.24(.66)	350	4.30(.69)	1.19
	2011년	340	4.04(.66)	344	4.11(.61)	1.50
어머니의 부부갈등	2008년	323	1.95(.75)	324	1.83(.73)	-2.11*
	2009년	351	1.99(.79)	360	1.90(.71)	-1.61
	2010년	351	2.09(.78)	360	1.97(.76)	-2.19*
	2011년	351	2.15(.78)	360	2.04(.75)	-1.84
아버지의 부부갈등	2008년	290	1.80(.68)	299	1.71(.64)	-1.58
	2009년	339	1.98(.76)	348	1.86(.65)	-2.18*
	2010년	342	2.09(.76)	350	1.98(.74)	-1.89
	2011년	340	2.16(.76)	344	2.04(.73)	-2.10*

* $p < .05$.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과 의도/비출산 집단의 양육지원에 대한 측면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3-8>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경우, 둘째를 출산한 집단이 첫째가 만 2~3세가 되는 2010년과 2011년에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로 성장함에 따라 비교적 육아에 서툰 아버지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과 동시에 어린 둘째 자녀를 어머니가 보살피는 동안 아버지가 첫째를 담당하게 되는 현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 가구에 대한 주변의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은 후속출산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3-8〉 양육지원

단위: 명, 점

구분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후속출산 의도/이행		t
		n	M(SD)	n	M(SD)	
아버지의 양육참여	2008년	323	3.76(.77)	324	3.66(.78)	-1.68
	2009년	352	3.72(.89)	358	3.75(.88)	0.49
	2010년	352	3.70(.85)	361	3.87(.86)	2.67**
	2011년	351	3.60(.81)	360	3.77(.81)	2.84**
정서적 지원	2008년	354	4.31(.74)	361	4.26(.69)	1.49
	2009년	353	3.82(.79)	358	3.90(.81)	1.34
	2010년	354	3.84(.76)	361	3.91(.75)	1.23
	2011년	354	3.79(.76)	361	3.79(.80)	0.05
도구적 지원	2008년	354	4.24(.62)	361	4.24(.65)	-0.09
	2009년	353	3.96(.71)	358	3.92(.72)	-0.73
	2010년	354	3.93(.68)	361	3.93(.70)	0.01
	2011년	354	3.88(.69)	361	3.84(.73)	-0.78
사교적 지원	2008년	354	4.10(.68)	361	4.16(.66)	1.20
	2009년	353	3.89(.68)	358	3.91(.72)	0.30
	2010년	354	3.93(.64)	361	3.93(.70)	0.07
	2011년	354	3.91(.65)	361	3.84(.68)	-1.39
정보적 지원	2008년	354	4.14(.70)	361	4.21(.68)	1.24
	2009년	353	3.81(.77)	357	3.86(.74)	0.91
	2010년	354	3.79(.77)	361	3.87(.73)	1.48
	2011년	354	3.76(.73)	361	3.73(.75)	-0.46

** p < .01.

다. 둘째 자녀 출산 의도 집단에서 출산 이행을 예측하는 변인들

후속출산 의도 집단의 출산 이행 여부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I-3-9>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분석 모형의 적절성은 모델 계수의 Omnibu 검증 결과인 χ^2 과 Hosmer-Lemeshow 적합도 두 가지로 살펴보았다. 기저모형과 분석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 χ^2 의 값이 24.85($p < .01$)로 나타났다. 이는 예측요인을 추가한 분석모형이 기저모형에 비해 우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관측치와 예측치를 비교 분석하여 로지스틱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Hosmer-Lemeshow 적합도($\chi^2=9.19, df=8, p=.33$)를 살펴본 결과, 실제 관측치와 모형에 의한 기대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분석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모형의 적절성을 나타내주는 Cox와 Snell R^2 은 .04이고

Nagelkerke R^2 은 .05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 분석에 투입된 어머니의 취업여부, 이상적인 자녀수,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후속출산 의도/이행을 예측할 확률은 63.9%이고, 후속출산 의도/미이행을 예측할 확률은 48.2%이며, 두 집단을 정확히 예측할 확률은 56.2%이다. 특히 이들 두 집단을 예측하는데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어머니의 이상 자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d 검증 결과 후속출산 의도의 이행 여부에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어머니의 이상 자녀수가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자녀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 수가 많은 경우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후속출산 의도 집단에서 이상적인 자녀수가 한 명 증가함에 따라 후속출산을 실행할 승산은 0.74배 만큼 증가하고, 승산의 변화 백분율은 26%($= (0.74-1) \times 100$)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IV-3-9〉 후속출산 이행 영향 변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SE	Wald	Exp(B)	Exp(B)의 95% C.I.	
					Lower	Upper
어머니의 취업여부	-.40	.17	5.78*	.67	.49	.93
이상적인 자녀수	-.30	.12	6.10*	.74	.58	.94
모의 정서적 가치	.03	.16	.04	1.03	.75	1.42
모의 도구적 가치	-.16	.12	1.86	.85	.67	1.07
부의 정서적 가치	.00	.14	.00	1.00	.76	1.31
부의 도구적 가치	-.11	.11	1.00	.90	.72	1.11
모의 결혼만족도	-.03	.15	.05	.97	.73	1.29
부의 결혼만족도	-.06	.12	.26	.94	.75	1.19
모의 부부갈등	.06	.14	.20	1.07	.81	1.41
부의 부부갈등	-.07	.11	.37	.93	.75	1.17
아버지의 양육참여	-.07	.11	.36	.94	.75	1.16

* $p < .05$.

4.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첫 출산 후 둘째 자녀의 출산을 의도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들 출산 이행 집단과 미이행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예측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후속 출산을 의도하고 있으나 실제 출산으로 연결시키지

못 하는 저해 요인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에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과 후속출산 의도/미이행 집단이 차이를 보인 변인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영향력이 높은 변인들을 중심으로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

출산저하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하고 있는 연구 결과 중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현상은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과의 역상관 현상이다. 통계청(2011)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경력 단절의 주된 사유는 결혼이 47.0%로 1순위로 꼽히지만, 육아와 임신을 합한 비율은 48.7%로 결혼을 약간 상회한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연령과 결혼 기간을 제외하고 4년 내내 일관성 있게 차이를 나타내었고 회귀분석에서도 출산 이행을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가 어머니의 취업이었다. 어머니의 관점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후속출산의 이행에 차이가 나지만,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아내가 취업할 경우 둘째 아이를 갖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후속출산을 의도하고 있는 집단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후속출산 이행에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의 정책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후속출산 의도가 있지만 경력단절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수렴함으로써 취업모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가 대두된다.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취업모의 모성과 양육권 및 노동권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상적인 자녀수 또한 후속출산 이행을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후속출산을 의도하고 있는 집단 중에서도 이행 집단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미이행 집단보다 많았으며, 이행 집단은 둘째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이상 자녀수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이행 집단의 이상 자녀수도 두 명 이상이지만 출산의도가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녀수에 있어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가적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출산 의도 집단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가치는 출산 이행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경향 분석에서는 후속출산 이행 집단은 후속출산 미이행 집단에 비해 자녀의 정서적 또는 도구적 가치가 연도에 따라 높게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이행을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자녀 가치관이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에서 강하다는 것은,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하에 실시된 가족계획정책에서 타과의 대상이 되었던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관점이라고 여겨진다. 저출산으로 인해 현 사회에서 논의되는 가장 큰 세 가지 우려점 - 국가의 존속 위기, 피부양층의 노령인구 부양비용 증가 및 국가 경쟁력의 저하 - 을 뒤집으면 그 당시 한 가정에서 남아를 선호했던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어떤 가정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것은 그 집안의 남아를 통해 한 가정의 가계가 계승된다는 견해, 즉 남아가 없으면 그 가정의 대가 끊긴다는 견해는, 현재의 초저출산에 의한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5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삼천만명 이하로 내려가서 결국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존속하지 않게 된다는 국가 계승에 대한 위기의식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 시기에는 국가가 아이의 양육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편적 복지의 개념도 부재했으므로, 남아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남아는 부모의 노후 대책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망자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 서게 되어 인구의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가 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역삼각형 모양을 그리게 되면 피부양층의 노령인구 부양비용이 8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스런 추정과도 관련된다. 별다른 물리적 자원 없이 전 세계에서 단 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저출산으로 인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은, 한 집안의 남아는 노동력 및 가구 수입과 직결되었기에 남아를 선호한 현상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자녀의 가치관은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여 다른 양태를 떨 뿐 그 기저에 흐르는 의식은 동일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즉시적 효과를 보이는 정책적 고려와 더불어 시민의식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의 탐색을 토대로 한 장기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4차년도에 걸친 부부의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그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 갈등은 낮았다. 결국 행복한 부부 관계가 자녀의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지역의 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한 부부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종단적 연구의 이점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후속출산 의도를 가진 집단의 출산 이행 여부를 연차별로 비교함으로써, 의도뿐만 아니라 행동 연구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는 것

이다. 둘째는 자녀간의 터울이 2~3년 간격이 되어 후속출산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첫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시점까지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후속출산 이행과 미이행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려고 한 것이다. 셋째, 후속출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출산 이행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밝힘으로써 후속출산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실행을 저해하는 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이후 다 자녀 출산을 위한 정책 지원의 방향성 제시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아동패널은 2020년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시기는 참여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일반적으로 거의 출산을 완결하는 시점에(45세 또는 49세) 근접하는 약 42세에 이르게 되어, 출산행태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완결출산 이행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규명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출산의도 관련 변인에 관한 횡단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 중 어떤 변인들은 본 연구의 출산의도/이행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단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8(4), 639-653.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두섭·차승은·송유진·천희란·김정석(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미출판.
- 김정석(2007). 기혼여성의 출산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김정현·조형태(2012). 거시경제흐름과 출산동향.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49(1), 48-58.

김현숙·류덕현·민희철(2006).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출산을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박수미(2006). 일하는 엄마와 저출산. 젠더 리뷰, 1(7), 13-23.

박수미(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3.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서문희(2010).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이 추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4(2), 76-95.

송영주·이주옥·김춘경(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185-206.

신윤정(2008). 보육 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연합뉴스(2012). 다산가정 늘었다...셋째아 이상 출산 급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3/09/0200000000AKR20120309167600002.HTML> 에서 2012년 4월 13일에 인출.

이삼식·정운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성림(2010). 자녀 양육비와 둘째 자녀 출산의도. 대한가정학회지, 48(10), 105-119.

이성용(2009).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분석. 한국인구학, 33(1), 51-70.

이인숙(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이예진(2011).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2009).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합리적-가치적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김주연·김영원(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차경옥(2005).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37-148.
- 차승은(2008). 부모역할의 보상 비용과 둘째 자녀 출산계획: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 11-134.
- 차재호(1988). 인간행동의 사요소에 관하여. 심리학의 연구문제, 3, 247-280.
- 통계청(2011). 보도자료: 2011년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
- 허경옥(2007).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한 자녀양육비 측정 및 새로운 측정 방법 개발. 소비자학연구, 18(3), 19-42.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http://www.bsos.umd.edu/socy/research/rosenberg.htm> 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Schwarzer, R., & Luszczynska, A. (2012). Self-Efficacy. Health Behavior Constructs: Theory, Measurement & Research, Cancer Control and Population Sciences. <http://dccps.cancer.gov/brp/constructs/self-efficacy/index.html> 9월 26일 인출.

Torr, M. R., & Short, S. E.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V. 유아 어머니와 아버지 간 자녀관, 심리적·맥락적 양육 특성 및 양육행동의 차이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

김 은 설⁵⁾

정 영 혜⁶⁾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직간접적으로 유아를 키우는 부모의 태도와 방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Berk, 2005; Hart, Newell, & Olsen, 2003).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 사회성, 적응성 등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Patterson & Forgatch, 1995; Wolchick, Sandler, Millsap, Plummer, Greens, & Anderson, 2003). 또한 자녀에게 바른 행동과 인성을 키워주는 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 양육 방식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Berk, 2005).

한국아동패널 연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변인 중 패널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한 정보는 특히 풍부하다. 그 중 패널 아동이 만 3세인 4차년도 조사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아버지 조사도 어머니 조사와 동일한 정도로 아버지 특성을 묻는 문항이 많아져서 부모가 가진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기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식과 의견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가정 내에서 나타나는 유아 자녀의 양육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5)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6) 육아정책연구소 위촉 연구원

Belsky(1984; 정현숙 외, 2002, 재인용)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복잡한 과정과 다양한 영향변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의 성격, 부모의 발달적 경험 등 부모의 내적 특성과 아동의 기질, 성, 연령 등 아동 특성, 그리고 부부관계, 사회관계망, 직업 등 부모가 처한 환경 즉, 맥락적 특성 등 3가지 영역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 부모의 양육 특성은 부모의 내적 특성과 맥락적 특성 등 두 측면에서 특히 살펴볼 만하다.

부모의 심리적 기능을 포함하는 성격적 측면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현숙 외(2002)는 온정적이고 인내심이 있으며 자존감이 높은 성숙한 성격의 부모는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을 기울이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며 자녀의 행동에 일관성 있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p.90). 또한 우울증을 가진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적대적이며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게 되고(Campbell, Cohn, & Meyer, 1995), 부모가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 자녀에 대한 인내심이 감소되어 부정적 반응이 높아진다(Gondoli & Silverberg, 1997).

양육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맥락적 특성의 측면에서 보면, 부부관계는 부모로서의 양육행동에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으로서 작용하며 부모 자신이 사랑과 존중을 받는 존재라고 느낌으로써 양육자에게 필요한 인내심을 키우게 되고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현숙 외, 2002). 박성연과 임희수(2000)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높은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합리적 지도와 독립심을 격려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구성형태가 변화되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가족 요구가 증가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정현숙 외, 2002). 최경순(1993)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윤서영과 정옥분(1999)은 사회적 적응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머니의 역할뿐 아니라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한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간 양육 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이 성장하는 양육 환경에 대한

다측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상호간 관점의 이해와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인지적 성취에도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들(권연희, 2003; 이해련·최보가, 2000; 김영이, 1994)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도록 이끌 수 있는 영향 변인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자료를 활용한 한국아동패널 조사에는 부모의 양육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여러 가지를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그 중 부모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등 심리적 기능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그리고 맥락적 특성인 부부간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고, 자녀 가치, 자녀 기대, 기대 자녀 수 등 자녀를 보는 관점인 자녀관, 직접적인 양육특성인 양육실제(양육행동)를 같이 분석하였다. 저출산이 국가적 화두인 현 시점의 정책적 시사점을 감안하여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녀 수,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녀의 가치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기대 성향 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특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넓히고자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통해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부모교육의 방향과 양육 지원 방식에 대한 시사점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자녀관) 즉, 이상 자녀 수 및 성별, 자녀 기대, 자녀 가치 등의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심리적 특성 즉,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환경 맥락적 특성인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 인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유아 어머니와 아버지는 양육 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다섯째, 유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가.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2011년 조사) 자료 중 어머니 설문과 아버지 설문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t 검정(*paired t-test*), X^2 검정, 다중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탐구하였다.

나. 사용 변인

사용변인은 자녀관, 부모의 심리적 특성, 환경 맥락적 특성, 자녀 양육 행동 등 네 가지 영역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관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인 자녀관은 이상적인 자녀 수, 자녀 성별에 대한 기대, 장래에 대한 자녀기대, 자녀가치 등을 포함한다.

가) 이상 자녀수 및 이상 자녀 성별

자녀가치관 및 출산행태를 예측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인 이상 자녀수는 응답자가 몇 명의 자녀는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관적인 자녀 규모를 밝히는 가치관이며 이상적 자녀의 성별에 대한 기대 또한 포함되고 있다(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이에 대해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몇 명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0명~5명 이상, 잘 모르겠음으로 답을 하면, 1명 이상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 딸, 아들을 구분하여서 인지, 구분한다면 성별에 따라 몇 명이기를 희망하는지 알아봄으로써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와 성별을 알 수 있다.

나) 자녀가치

부모됨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녀 가치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동기를 의미하며, 이삼식 외(2005)의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아동패

널에서 문항은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측정하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가치를 묻는 문항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등 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도구적 가치는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등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 신뢰도는 $\alpha = .80$ (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정영혜, 2011)으로 보고되었다.

다) 자녀 미래기대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는 개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부모가 속한 거시적, 미시적 체계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자녀의 미래 기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NWEC, 2007)에서 사용된 문항을 활용하여, 한국아동패널의 자녀 미래 기대는 6가지의 자녀기대 표현 문장을 주고 이에 대한 부모의 동의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각 유형별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비교연구가 가능한 자녀 미래 기대는 '돈을 잘 번다',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한다'로 총 6가지이다.

2) 부모의 심리적 특성

가) 자기 효능감

자기효능감은 Mainieri와 Grodsky(2006)가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PSID-CDS)에서 사용한 Pearlin 자기 효능감 척도(Pearlin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총 4개 문항은 각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의 범위는 4~20점이 된다.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Mainieri와 Grodsky(2006)에 의하면 Chronbach α 는 .79이며, 한국아동패널 예비조사에서는 .82로 측정되었다.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6)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 4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내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때때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Mainieri(2006)에 따르면 문항내적 신뢰도(α)는 .85로 알려져 있고, 한국아동패널 예비조사에서는 신뢰도가 .82였다.

다) 우울

우울을 재는 도구로는 Kessler 외(2002)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편형으로 개발한 우울 척도(K6)를 사용하였다., 총 6개 문항인 이 도구는 1~5점까지로 평정하는 리커드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essler, Galea, Jones와 Parkerd(2006)가 성인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문항 신뢰도(α)는 .89로 측정되었다.

라) 양육스트레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 중, 부모 영역, 아동 영역, 부모-자녀 상호작용 영역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 원 척도 중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영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검사 신뢰도는 .82(Chronbach α)이다.

3) 환경·맥락적 특성

가) 결혼만족도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수인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Schumm, Nicols, Schectman과 Grigsby(1983)의 결혼만족도 측정 도구를 Chung(2004)이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한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RKMSS)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5점 척도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20점 사이 점수

범위를 가진다.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 문항신뢰도는 .93으로 알려져 있다.

나) 부부 갈등

Markman, Stanley와 Blumnerg(2001)의 부부 갈등 척도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하도록 되어있는데, 정현숙(2004)은 이를 6점 리커드 척도로 수정 및 번안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5점 리커드 척도로 된 8개 문항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8~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Chronbach α 는 .90으로 보고되었다.

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점수 범위는 4~20점이다. 측정도구는 강희경(1998)과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으로, 한국아동패널 예비조사에서 문항 신뢰도(α)는 .86이었다.

4) 양육 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육 행동은 양육스타일(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형식은 8점 리커드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 유형임을 의미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8~40점이다. Bornstein(1996)의 도구를 번역한 것으로 이형민과 박성연, 서소정(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6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양육행동은 여러 양육 행동 유형 중 유아에게 권위와 규칙, 관습을 가르치는 정도를 의미하는 '한계설정 양육유형'의 점수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연구의 조사 설문지를 보면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의 구인은 동일하나 문항의 구체적 질문 내용이 어머니와 아버지 질문지간 차이가 있어 이들 점수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육유형 문항 중 자녀 양육에서 규칙과 관습 준수를 가르치는 한계설정 양육유형 관련 질문은 어머니용과 아버지용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들 문항에 대해서만 부모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가.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한국아동패널 2011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총 1,754명으로 어머니는 1,706명, 아버지는 1,643명으로 어머니가 조금 더 많은 수가 참여하였다.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거주 지역의 분포를 보면 대도시가 39.1%, 중소도시 39.9%, 읍면지역이 21.0%로 조사되어 79%의 가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 자산, 이진, 금융,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여 월평균으로 산출한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34.7%, 300만원대가 26.3%, 200만원대와 400만원대가 각각 17.8%, 16.4%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30대가 어머니 아버지 각각 82.6%, 77.1%로 가장 많았다. 최종 학력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대학 졸업(38.4%, 42.7%), 고등학교 졸업(29.9%, 26.0%), 전문대 졸업(26.0%, 20.2%) 순으로 많았다. 부모의 취/학업여부와 직업분류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취/학업 중인 경우가 40.6%, 미학업/미취업이 59.6%였으며 아버지는 98.5%가 취/학업 중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5.8%, 사무 종사자가 32.4%, 판매 종사자 9.8%순이었으며, 아버지는 사무 종사자 23.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7%, 장치·기계 및 조립종사자 1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13.3%, 판매 종사자 10.3%순으로 많았다. 종사상 지위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두 정규직이 각각 67.1%, 73.4%로 가장 많았고, 고용주/자영업자는 14.0%, 20.5% 순이었다.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V-3-1>에 나타나 있다.

<표 V-3-1>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지역규모	
대도시	39.1(686)
중소도시	39.9(699)
읍면지역	21.0(36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9(86)
200~299만원	17.8(312)
300~399만원	26.3(461)
400~499만원	16.4(287)
500만원 이상	34.7(608)

(표 V-3-1 계속)

구분	비율(수)	
	어머니	아버지
연령		
20~29세	10.8(186)	4.1(70)
30~39세	82.6(1,428)	77.1(1,323)
40~49세	6.7(115)	18.4(316)
50세 이상	0.0(0)	0.5(8)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0.7(11)	0.8(14)
고등학교 졸업	29.9(522)	26.0(452)
전문대(2·3년제) 졸업	26.0(455)	20.2(351)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38.4(669)	42.7(742)
대학원 석사 졸업	4.7(82)	9.7(168)
대학원 박사 졸업	0.4(7)	0.7(12)
취업여부		
취/학업 중	40.4(703)	98.5(1,714)
미학업/미취업	59.6(1,038)	1.5(26)
직업분류(대분류)		
관리자	3.6(17)	2.1(3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8(219)	22.7(367)
사무 종사자	32.4(155)	23.7(383)
서비스 종사자	4.6(22)	5.2(84)
판매 종사자	9.8(47)	10.3(16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0)	1.7(2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6(3)	13.3(216)
장치·기계 및 조립종사자	1.7(8)	13.6(220)
단순노무 종사자	1.0(5)	2.7(44)
군인	0.4(2)	1.7(27)
종사상 지위		
정규직/상용직	67.1(464)	73.4(1,128)
임시직	12.4(86)	2.3(35)
일용직	1.2(8)	2.7(42)
고용주/자영업자	14.0(97)	20.5(315)
무급가족종사자	5.2(36)	1.0(16)
계		100.0

나. 자녀관

1) 이상 자녀수

한국아동패널 연구 대상 아동들의 부모에게 이상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 중 가장 많은 56.6%가 2명이 이상 자녀수라고 응답하였고, 29.2%가 3명의 자녀수에 응답하였으며, 4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8.9%였다. 반면에 이상 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은 2.9%에 불과하였다. 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도 어머니와 유사한 응답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역시 제일 많은 60.1%가 2명이 이상 자녀수라고 응답하였고, 29.0%가 3명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간 t 검정은 두 응답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녀를 1명이나 2명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아버지가 높고 4명이 이상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어머니가 훨씬 높았다. 가정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고 아버지들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여 1~2명을 선호하는 데 비해 어머니들은 현실을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하고 그야말로 이상적으로 볼 때 4명을 꼽았다는 점은 분명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1,701명의 어머니 중 8.9%인 151명이 4명을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는 우리 출산을 제고 정책에 대해 이상과 현실 간 괴리를 보다 충실하게 살펴볼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는 듯하다.

〈표 V-3-2〉 부모 간 이상적인 자녀수 인식 비교

구분	무자녀	단위: %(명)						계(수)	$\chi^2(df)$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잘 모르겠음		
어머니	0.2	2.9	56.6	29.2	8.9	0.5	1.6	100.0(1,701)	35.11(6)***
아버지	0.1	4.0	60.1	29.0	4.4	1.2	1.2	100.0(1,620)	

*** $p < .001$.

2) 이상적인 자녀의 기대 성별

자녀에 대한 기대 성별에서 딸·아들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남아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여아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이상적으로 보는 딸의 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어머니는 1.60명을 원했고 아버지는 1.36명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

어 어머니가 더 많은 딸을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상으로 보는 자녀 수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나 이상적 자녀 성별 수에 대한 반응 등 모두에서 어머니가 더 많은 자녀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V-3-3〉 부모 간 성별 이상적 자녀 수 인식 비교

단위: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수)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이상적인 아들 수	1.25	.47	1.28	.46	(314)	- .85
이상적인 딸 수	1.60	.51	1.36	.52	(314)	7.68***

*** $p < .001$.

3) 부모의 자녀가치

본 연구에서에서 자녀가치의 하위척도인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평균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4.33점과 2.85점이었고, 아버지의 경우는 4.49점과 3.20점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점수 각각의 차이를 *paired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자녀가치 점수의 차이는 두 가지 하위척도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전체적으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자녀가치를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들이 자녀의 정서적, 도구적 가치를 어머니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표 V-3-4〉 부모 간 자녀가치 인식 비교

단위: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사례수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가치	4.33	.58	4.49	.52	(1,622)	-10.30***
도구적 가치	2.85	.77	3.20	.80	(1,618)	-16.06***

*** $p < .001$.

4) 부모의 자녀 미래 기대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대해 갖는 기대 각 항목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모두 질문하였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평정한 점수를 '매우 원한다' 4점, '다소 원한다' 3점, '별로 개의치 않는다' 2점, '전혀 개의치 않는다' 1점으로 환산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가장 높은 문항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것이었고, 이타심과 금전적 성공이 그 뒤를 이었다. 각 항목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점수 차이를 *paired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이타심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보인 반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기대하는 항목은 금전과 행복한 가정이었으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기대하는 항목은 명성, 사회적 지위 및 취미나 여가 생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미래기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각 항목에 대한 기대 점수는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즉 어머니든 아버지든 행복한 가정이라는 항목에 대한 기대 점수가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이타심, 다음으로 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 취미나 여가 등 모두 비슷한 중요도 순위를 보인다. 그러나 둘 간 점수 비교에서는 어머니가 금전이나 가정의 행복 등 보다 개인적 측면의 안정성을 더 많이 기대하는 데 비해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 등 돈이 아닌 사회적 성공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사회적 성공과 더불어 자녀의 취미나 여가 생활을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표 V-3-5〉 부모 간 자녀 미래기대 비교

단위: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사례수	<i>t</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금전 (돈을 잘 번다)	3.25	.60	3.16	.66	(1,616)	5.18***
명성 (명성을 얻는다)	2.83	.76	2.89	.74	(1,615)	-2.84**
사회적 지위 (높은 지위를 갖는다)	2.83	.75	2.88	.76	(1,612)	-2.22*
이타심 (타인을 돕는다)	3.28	.62	3.30	.63	(1,612)	-1.03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3.86	.39	3.83	.42	(1,618)	2.30*
취미나 여가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한다)	2.76	.68	2.86	.74	(1,615)	-4.76***

* $p < .05$, ** $p < .01$, *** $p < .001$.

다. 부모 간 심리적 특성 비교

1)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의 평균 점수는 각각 2.35점과 2.17점이었고 각각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64점과 3.76점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차이가 나는지를 *paired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이 세 가지 심리적 특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이 더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우울 성향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유아 자녀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심리적 특성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의 점수가 모두 높고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모두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3-6〉 부모 간 개인 내적특성 비교

단위: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사례수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기효능감	2.35	.72	2.17	.69	(1,621)	8.89***
자아존중감	3.64	.58	3.76	.53	(1,621)	-7.38***
우울	11.82	4.43	11.26	4.17	(1,618)	4.70***

주: 자기효능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임을, 자아존중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우울은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함.

*** $p < .001$.

2) 양육스트레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조사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평균값은 2.76점이었고,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평균값은 2.44점이었으며, 이 차이를 *paired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유의미하였다. 즉,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등 다른 부정적 심리적 특성 또한 어머니에게서 높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듯하다.

〈표 V-3-7〉 부모 간 양육스트레스 비교

단위: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사례수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육스트레스	2.76	.67	2.44	.62	(1,622)	16.99***

*** $p < .001$.

라. 부모 간 환경 맥락적 특성 인식 비교

1)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부부관계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의 두 변인을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3.75점,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4.04점으로 모두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부부갈등은 8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응답 가능한 최소 점수는 8점, 최대 점수는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많음을 의미한다. 부부갈등의 점수에서 어머니의 점수는 2.10점, 아버지의 점수는 2.12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paired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결혼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갈등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V-3-8〉 부모 간 부부관계 특성 비교

단위: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사례수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결혼만족도	3.75	.72	4.04	.64	(1,619)	-16.17***
부부갈등	2.10	.76	2.12	.73	(1,620)	-1.34

*** $p < .001$.

2) 아버지 양육 참여 정도 인식

부모의 양육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를, 4차년도 조사에서는 도움을 주는 아버지와 도움을 받는 어머니 모두에게 조사하였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협조 정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정은 모두 평균 3.62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 인식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paired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 인식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부모 간 아버지 양육참여 정도 인식 비교

단위: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사례수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양육참여	3.62	.80	3.62	.62	(1,620)	0.20

마. 부모 간 양육행동 비교

양육행동은 사회적 양육유형, 가르치는 양육유형, 한계설정 양육유형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한계설정 양육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양육유형의 평균값은 3.50점, 아버지는 평균 3.46점이었고, 이를 *paired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권위와 규칙, 관습을 가르치는 양육행동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양육행동 점수가 높은 쪽이 어머니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표 V-3-10〉 부모 간 양육행동 비교

단위: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사례수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육행동	3.50	.46	3.46	.52	(1,623)	2.45*

* $p < .05$.

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비교

본 연구에서 측정한 긍정적 양육행동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자녀관, 심리적 특성, 환경 맥락적 특성 등 모든 관련 변인을 단계진진투입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최종모형을 보면(표 VII-3-10), 유의미하게 포함된 변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 5개임을 알 수 있다. 즉 심리적 특성과 환경 맥락적 특성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녀관은 관련이 없는 것

으로 나왔다.

이 중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양육스트레스 등 심리적 특성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 점수는 양육참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효능감이 적을수록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이 설명하는 설명량은 35.1%(R²)로, 상당한 비중을 보인다.

〈표 V-3-11〉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최종모형)

구분	B	표준오차	β	t	F	Adj R ²
(상수)	37.096	1.852	-	20.027		
아버지 양육참여	1.132	.057	.444	19.929***		
양육스트레스	-.153	.026	-.150	-5.950***	173.328***	0.351
결혼만족도	.251	.026	.097	4.232***		
자아존중감	.157	.059	.077	3.746***		
부정적 자아효능감	-.147	.059	-.061	-2.489		

*** $p < .001$.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보면, 아버지의 경우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결혼만족도 변인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울 점수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기대나 가치 인식 등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점수는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정적 자아효능감이 적을수록, 그리고 우울감이 적을수록 높아진다고 본다. 이 변인들의 설명량은 22.3%이다.

〈표 V-3-12〉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최종모형)

구분	B	표준오차	β	t	F	Adj R ²
(상수)	60.342	1.650	-	36.564		
양육스트레스	-.294	.024	-.324	-12.476***		
아버지 양육참여	.334	.045	.169	7.433***	95.555***	0.223
자아존중감	.279	.047	.132	5.923***		
부정적 자아효능감	-.145	.063	-.065	-2.288*		
우울	-.082	.041	-.057	-2.008*		

* $p < .05$, *** $p < .001$.

4.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유아 자녀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양육자로서의 심리적 특성이나 맥락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다.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1~2명의 자녀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아들 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딸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에 대해 보다 높은 정서적 및 도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 취미/여가 생활 등을 자녀의 미래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어머니 보다 높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금전적 성공, 행복한 가정 생활을 자녀 미래에 기대하는 경향이 더 크다.

셋째,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심리적 특성에서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등에서 모두 아버지가 어머니 보다 긍정적 성향을 보였다.

넷째,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높은 결혼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부부갈등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었으며,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의 인식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한계 설정 양육행동 측정에서 어머니의 점수가 아버지 점수보다 높아,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욱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이 포함된 점이 아버지의 경우와 다른 결과였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관, 심리적 특성, 맥락적 특성, 양육행동 등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며,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있어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리 결혼만족도가 주요 영향 변인에 속하는 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

계는 없는 우울이 영향 변인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는 특히 양육에 참여를 많이 하고 부부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낮추도록 애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아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큰 영향력을 가진다. 물론 이외에도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부정적인 자아효능감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부모 모두에게 필요하다.

나. 정책적 제언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이슈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앞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 가족 내에서도 자녀 수에 대해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은 자녀를 이상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어머니 중심 출산 지원이 필요하다. 즉, 대부분의 아버지가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실제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양육과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출산과 양육 비용 지원은 아버지의 자녀 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직접적 관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용 이외 실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노동과 책임에 대한 측면은 어머니의 부담이 되는 경향 많다고 볼 때, 어머니의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같이 있을 때 어머니가 이상을 실현하기가 용이해 질 것이다. 결국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시기, 출산 과정,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이어지는 어머니로서의 힘든 기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다자녀를 갖고자 하는 어머니로서의 욕구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임신기 동안 많은 국가 서비스(문화재 입장료, 도로통행료, 관람료, 교통비 등)나 민간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임신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하는 병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서비스 제공 의식을 서방 선진 국가 수준으로 상향시키며, 자격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출산 도우미나 육아 도우미를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가 지원되어야 한다. 만일 육아도우미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영아기 무상보육서비스 수혜에 물리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고 가정 양

육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 강화로 지원 방향을 맞출 수 있으며, 영유아기에 필요한 의·식 관련 기본 지출에 수당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임신, 출산, 육아 모든 측면에 대한 지원이 어머니를 위한 맞춤형 출산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재원 마련과 출산력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문제임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데에는 결혼만족도가 큰 작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 어머니의 경우는 결혼만족도가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존해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 양육태도를 형성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등 부정적 심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어머니의 정신 건강을 우선적으로 관리해 가는 것이 결국 부모 모두에 대한 긍정적 양육행동 강화를 위한 지원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취업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양육에 몰입해 있는 어머니들에 대해 구분하여 적절한 정신 건강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 등을 국가 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심리적 건강 상담과 검진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아버지들이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데에는 양육에 대한 참여의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신체적 여유가 주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아버지들의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업무 시간 이후 아버지가 가족이 아닌, 동료, 업무상 관계자들과 보내야 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임들은 자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업무 시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이 된다. 사회적으로 아버지들의 업무 시간을 준수하고 관련 일들은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회식 등 모임은 점심시간에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어머니만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 이는 또한 취업모들에게도 필요한 적극적 양육 지원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전략 및 어머니의 행동이 아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박성연·임희수(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윤서영·정옥분(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2), 101-123.
-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이(199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수 및 지역차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구.
- 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정영혜(2011).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형민·박성연·서소정. (2008). 어머니의 양육 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이혜련·최보가(2000). 유아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정서이해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5), 1-14.
- 정현숙(2004). “결혼 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정현숙·유계숙·어주경·전혜정·박주희(2002). 부모학. 서울: 신정.

- 최경순(199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4(2), 115-135.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Belsky, J. (1984). The deterre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rk, L. E. (2005). *Child Development*.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Campbell, S. B., Cohn, J. F., & Meyers, T. (1995). Depression in first-time mothers: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depression chronic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1(3), 349-357.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9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 Normand, S.-L. T., et al.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essler, R. C., Galea, S., Jones, R. T., & Parker, H. A. (2006). Mental illness and suicidality after Hurricane Katrina.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4(12), 930-939.
- Hart, C. H., Newell, L. D., & Olsen, S. F. (2003). Parenting skills and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e in childhood. In J. O. Greene & B. R. Burleson(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skills*(pp.753-797). Mahwah, NJ: Erlbaum.

- Mainieri, T. & Grodsky, M.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supplement for CDS-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1_UGSupp.pdf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Saitama, Japan: Author.
- Patterson, G. R., & Forgatch, M. (1995). Predicting future clinical adjustment from treatment outcome and process variables. *Psychological Assessment*, 7, 275-285.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567-572.
- Wolchick, S. A., Sandler, I. N., Millsap, R. E., Plummer, B. A., Greens, S. M., & Anderson, E. R. (2003). Six-year follow-up of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children of divorc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8, 1874-1881.

VI.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아동패널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총 네 가지 연구 과제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그 함의를 찾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초연구로서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통해 생산된 자료의 가치를 확인하고 연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패널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정책적 방안 수립을 위한 지원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모두 4팀이었으며 이들 각자는 패널 조사에 사용된 변인을 들여다보고 그들 간의 관계를 기존 이론을 통해 탐구한 후 가설을 세우고 그를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본 장에서는 그 결과로 제시된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발달에 대한 영향 변인을 살펴본 첫 번째 연구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의 하나인 수면시간은 발달 수준에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들의 수면시간의 양과 수면의 질과 성장기의 발달 정도에 대한 영향 간 관계 탐색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기질과도 관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발달수준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기질과 발달수준과의 관계를 볼 때, 기질의 특성에 따라 발달수준의 영향을 다르게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수면시간이 충분하고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수용적이라면 기질은 이에 대한 완화효과와 증진효과를 가져와서 발달수준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와 기질에 대한 고려 등의 측면에서 육아지원기관이나 영유아 양육자에게 주는 시사점을 함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유아의 어휘력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였다. 유아의 개인 특성과 평일 일과활동, 일상생활시간 등이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유아의 기질이나 또래상호작용, 출생순위 등이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학습지 하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이 동일한 어휘력 발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밝혔다. 결론에서는 유아의 일상생활에 바람직한 경험을 증가시키고, 육아지원

기관 및 부모에게 유아를 위한 평일 일상생활을 유아 중심으로 지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출산 의도와 실제 후속 출산 이행의 관련성을 밝히고자는 하는 연구로, 첫 출산 후 둘째 자녀의 출산을 의도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들 출산 이행 집단과 미이행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예측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후속 출산을 의도하고 있으나 실제 출산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저해 요인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현상은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과의 역상관으로, 후속출산을 의도하고 있는 집단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후속출산 이행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수렴함으로써 취업모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취업모의 모성과 양육권 및 노동권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이상적인 자녀수 또한 후속출산 이행을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로 밝혀진 바, 후속출산을 의도하고 있는 집단 중에서도 이행 집단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미이행 집단보다 많았다. 결과적으로 자녀수에 있어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과 양육 특성을 탐색하고 비교했던 네 번째 연구에서는, 한 가정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관, 심리적 특성, 맥락적 특성, 양육행동 등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있어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리 결혼만족도가 주요 영향 변인에 속하는 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는 없는 우울이 영향 변인에 포함되고 있었다. 따라서 유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는 특히 양육에 참여를 많이 하고 부부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낮추도록 애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책적으로 어머니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방안과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지지 강화, 아버지의 양육 참여 확대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올해 한국아동패널 심층보고서는 첫 시도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지속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꾸준히 양육과 관련한 핵심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보다 과학적이고 수준 높게 논의하고 연구하는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Eunseol Kim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prove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suggest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olicies, inform scholars in the related fields of the findings of the PSKC , and check the utility of the data from the third wave by analyzing the PSKC data through in-depth studies.

This research report includes four independent studies, each having a different theme. The first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trait, sleeping hours, and mothers' style of parenting on young children's development.

The second examined the state of language development in 3 year old children and explored the estimate variables by investigating young children's personal characteristics, daily activities, and everyday life.

The third analyzed the factors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of couples who choose to have a second child and couples who have not a second child even though they both intended to have more babies after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The purpose of the final study was to compare the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 of childbirth and parenting and explore the effects of different parenting styles on child rearing.

연구보고 2012-34

한국아동패널 2012 심층분석 연구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학문화 02) 393-633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30-5 93330